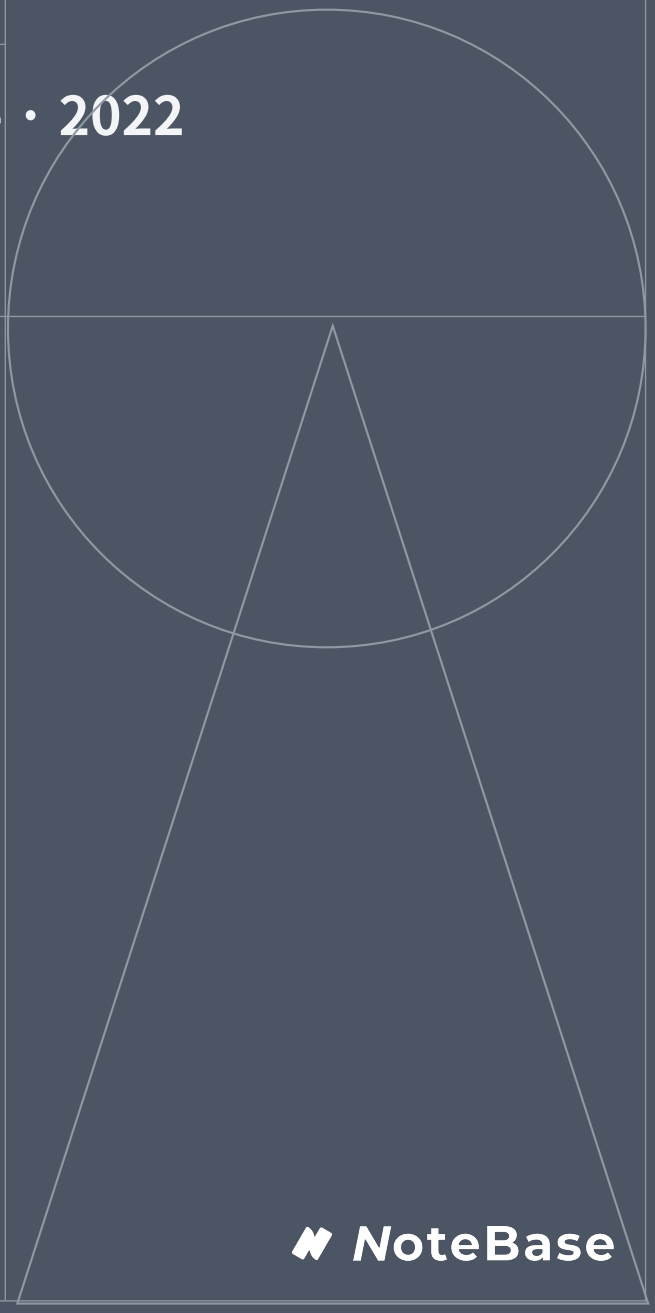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세무사 · 회계학개론 · 2022



NoteBas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세무사 · 회계학개론 · 2022

전문직/세무사 · 회계학개론 · 2022

문 1.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무보고서는 경제적 현상을 글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다.

②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면(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 확인가치를 갖는다.

③ 중립적 정보는 목적이 없거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

④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없다.

⑤ 합리적인 추정치의 사용은 재무정보의 작성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추정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되고 설명되는 한 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중 목적적합성, 표현충실성, 중요성의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특히 중립성은 정보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편의 없이 경제적 현상을 묘사한다는 뜻임을 판단해야 한다.

핵심 개념

목적적합성: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의 특성이다. 예측가치나 확인가치 또는 둘 다를 가지면 목적적합할 수 있다.
표현충실성: 경제적 현상을 글과 숫자로 나타낼 때 그 실질을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 없이 묘사하는 특성이다.
중립성: 재무정보를 선택하거나 표시할 때 편의가 없는 상태이다. 정보가 목적이나 영향력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요성: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표시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일반목적재무보고서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그 정보가 중요하다는 개별 기업 특유의 판단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재무보고서는 기업의 경제적 현상을 글과 숫자로 나타내어 정보이용자에게 전달한다. 이는 경제적 현상을 재무정보로 묘사한다는 표현충실성의 전제와 맞는다.
② O - 과거의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하도록 피드백을 제공하는 정보는 확인가치를 가진다. 확인가치는 목적적합성을 구성하는 가치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중립적 정보는 목적이 없거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정보'라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중립적 정보란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는 정보이며,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나 영향력 자체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④ O - 중요성은 기업의 특성과 해당 정보의 성격 또는 크기 등을 고려하는 개별 기업 특유의 판단이다. 따라서 회계기준위원회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 상황의 중요성을 미리 결정할 수 없다.
⑤ O - 합리적인 추정치의 사용은 재무정보 작성에 필수적이다. 추정치와 그 불확실성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되고 설명된다면 추정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보의 유용성이 저해되지는 않는다.

오답 포인트

③은 '중립적'이라는 말을 '아무 목적도 없고 행동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 상태'로 바꿔 놓았다. 재무정보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되므로 영향력이 있을 수 있으며, 중립성의 판단 기준은 영향력의 유무가 아니라 정보의 선택과 표시에 편의가 있는지 여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질적 특성의 정의를 묻는 선지는 핵심 판단어를 확인한다. '과거 평가의 확인·변경'은 확인가치, '편의 없는 선택·표시'는 중립성, '기업별 성격·크기 판단'은 중요성, '합리적 추정과 충실한 설명'은 정보 유용성과 양립한다.

암기 포인트

중립성은 무영향이 아니라 무편의이다. 확인가치는 과거 평가에 대한 피드백이고, 중요성은 개별 기업 특유의 판단이다.

NoteBase

문 2. 무형자산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다.

② 자산을 운용하는 직원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지출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③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④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을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구입하기로 약정한 경우, 잔존가치는 영(0)으로 보지 않는다.

⑤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무형자산의 원가 포함 범위, 내부창출 항목의 인식 금지, 잔존가치, 내용연수 변경 및 상각 방법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비한정에서 유한으로 내용연수 평가가 바뀌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유한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영(0)이지만,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구입하기로 약정한 경우 등에는 영(0)이 아닐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다.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나 상황에 따른 내용연수 평가의 변경이므로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교육훈련 관련 지출을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이다. 직원 교육훈련 지출은 기업이 숙련된 직원에게서 생기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충분히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발생 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이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 및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항목은 사업 전체를 개발하는 원가와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④ O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잔존가치를 원칙적으로 영(0)으로 보지만,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그 자산을 구입하기로 약정했다면 예외적으로 영(0)이 아닌 잔존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⑤ X — 틀린 표현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상각한다'이다.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을 때 정액법을 적용하는 대상은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이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의 잔존가치 영(0) 원칙만 기억하면 제3자의 구입 약정이라는 예외를 놓치기 쉽다. 또한 ⑤는 '소비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으면 정액법'이라는 규칙 자체는 맞지만, 그 적용 대상을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으로 바꾸어 놓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내용연수가 유한한지 비한정인지 확인한다. 유한이면 상각 방법과 잔존가치 예외를 검토하고, 비한정이면 상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용한다. 내부창출 항목은 식별 가능성과 원가의 구분 가능성을, 교육훈련 지출은 기업의 통제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비한정은 무상각·매년 손상검사, 비한정에서 유한으로의 변경은 추정 변경, 잔존가치 영(0)의 예외는 제3자 구입 약정이다.

NoteBase

문 3. (주)세무는 20x1년 1월 1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의 연속상환사채를 발행하였다. 20x2년 말 재무상태표상 동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 액면금액 : ₩1,200,000
◯ 이자지급 :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년 12월 31일에 지급
◯ 상 환 : 20x2년부터 20x4년까지 매년 12월 31일에 ₩400,000씩 연속상환
◯ 발행당시 유효이자율 : 연 6%

구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5%	6%	5%	6%
1년	0.9524	0.9434	0.9524	0.9434
2년	0.9070	0.8900	1.8954	1.8334
3년	0.8638	0.8396	2.7232	2.6730
4년	0.8227	0.7921	3.5459	3.4651

① ₩396,221
② ₩788,896
③ ₩796,221
④ ₩988,221
⑤ ₩1,188,896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연속상환사채의 보고일 현재 남아 있는 원금과 이자를 파악하고, 그 미래 현금흐름을 발행 당시 유효이자율 6%로 할인하여 상각후원가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20x2년 12월 31일의 이자와 원금 400,000원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 시점 이후 남은 액면원금은 800,000원이며, 20x3년 말과 20x4년 말에 각각 원금 400,000원을 상환한다. 이자는 각 기간의 미상환 액면원금에 표시이자율 5%를 적용하고, 장부금액은 유효이자율 6%로 할인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보고일 현재 장부금액은 남은 계약상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이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장부금액=Σ ≤ft(남은 원금과 이자 현금흐름×6% 현가계수)
표시이자율 5%는 지급이자를 정할 때 사용하고, 유효이자율 6%는 상각후원가를 계산할 때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20x3년 말 현금흐름은 원금 400,000원과 이자 40,000원(800,000원×5%)을 합한 440,000원이다.
2. 20x4년 말 현금흐름은 원금 400,000원과 이자 20,000원(400,000원×5%)을 합한 420,000원이다.
3. 20x2년 말부터 각각 1년 후와 2년 후의 현금흐름이므로 표의 6% 단일금액 현가계수 0.9434와 0.8900을 적용한다.

$440{,}000 \times 0.9434 + 420{,}000 \times 0.8900$
=415,096+373,800=788,896원

선지 판단

① X — 396,221원은 20x3년 말과 20x4년 말의 두 잔여 현금흐름을 모두 반영한 현재가치가 아니다. 이 금액을 788,896원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 남은 현금흐름 440,000원과 420,000원을 각각 6%로 할인한 합계가 788,896원이므로 옳다.
③ X — 796,221원은 주어진 6% 현가계수로 계산한 415,096원과 373,800원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 금액을 788,896원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988,221원은 20x2년 말 지급이 끝난 원금과 이자를 제외하고 남은 현금흐름만 할인한 금액이 아니다. 이 금액을 788,896원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1,188,896원은 20x2년 말 이미 상환된 원금 400,000원을 반영하지 않은 과대한 금액이다. 이 금액을 788,896원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표시이자율 5%와 유효이자율 6%의 용도를 바꾸거나, 20x2년 말 이미 지급한 원금 400,000원과 이자를 장부금액에 다시 포함하면 틀린다. 또한 연속상환사채는 원금이 줄어들므로 이자도 20x3년 40,000원, 20x4년 20,000원으로 감소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보고일까지 지급된 원리금을 제거하고, 이후 각 연도의 미상환 원금에 표시이자율을 적용해 현금흐름을 만든다. 그 현금흐름을 보고일 기준 기간에 맞춰 유효이자율 현가계수로 할인한다.

암기 포인트

표시이자율은 현금이자, 유효이자율은 장부금액 계산에 사용한다. 연속상환에서는 원금이 줄면 이자도 함께 줄어든다.

NoteBase

문 4. 투자부동산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가까운 장래에 개발하여 판매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② 토지를 자가사용할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분류한다.

③ 호텔을 소유하고 직접 경영하는 경우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전체 계약에서 유의적인 비중을 차지하므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④ 지배기업 또는 다른 종속기업에게 부동산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연결재무제표에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없고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분류한다.

⑤ 사무실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하는 리스이용자에게 경미한 비중의 보안과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동산 보유자는 당해 부동산을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부동산의 보유 목적과 부수 용역의 중요성, 연결재무제표에서의 사용 주체에 따라 투자부동산·재고자산·자가사용부동산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이다.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할 부동산은 재고자산이고, 재화의 생산·용역 제공 또는 관리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자가사용부동산이다. 부동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부수 용역이 전체 계약에서 경미하면 투자부동산이지만 유의적이면 자가사용부동산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이다.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가까운 장래에 개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분류한다'이다. 토지의 미래 용도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 시세차익을 위해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이다. 소유자가 호텔을 직접 경영하면서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전체 계약에서 유의적인 비중을 차지하면 그 호텔은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분류한다.
④ O — 지배기업 또는 다른 종속기업에게 리스한 부동산은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요건을 충족하면 투자부동산이 될 수 있지만, 연결실체의 관점에서는 그 부동산을 연결실체가 사용하므로 연결재무제표에서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분류한다.
⑤ X — 틀린 표현은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분류한다'이다. 사무실 건물의 소유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보안·관리용역의 비중이 경미하면 임대수익 목적이 유지되므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부동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②의 '용도 미결정'을 자가사용으로 오해하거나, ③과 ⑤에서 부수 용역의 제공 여부만 보고 그 용역의 비중을 놓치기 쉽다. 또한 ④는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관점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보유 목적을 확인한다. 판매 목적이면 재고자산, 직접 사용 목적이면 자가사용부동산, 임대수익·시세차익 목적이면 투자부동산이다. 용역이 함께 제공되면 그 비중이 경미한지 유의적인지를 보고,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별도재무제표인지 연결재무제표인지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판매는 재고, 직접 사용은 자가사용, 임대·시세차익은 투자부동산이다. 경미한 용역은 투자부동산, 유의적인 용역과 연결실체의 사용은 자가사용부동산이다.

NoteBase

문 5. (주)세무는 20x1년 1월 1일 기계장치(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원가모형 적용)를 ₩240,000에 취득하여 기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한 후 즉시 사용하고 있다. 시험하는 과정에서 시운전비 ₩40,000이 발생하였고, 시험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은 시험 종료 후 즉시 전부 판매하고 ₩20,000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주)세무는 20x1년 7월 1일 동 기계장치를 재배치하기 위해 운반비 ₩50,000과 설치원가 ₩50,000을 추가 지출하였다. 20x1년 말 기계장치에 대한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는 각각 ₩150,000과 ₩120,000으로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20x2년 말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는 각각 ₩160,000과 ₩170,000으로 회복되었다. 위 거래와 관련하여 (주)세무의 기계장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한다.)

① 20x1년 손상차손은 ₩45,000이다.

② 20x1년 감가상각비는 ₩65,000이다.

③ 20x2년 감가상각비는 ₩40,000이다.

④ 20x2년 말 장부금액은 ₩140,000이다.

⑤ 20x2년 손상차손환입액은 ₩30,000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운전 관련 지출과 시제품 판매대금의 처리, 재배치원가의 자본화 여부,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의 한도를 순서대로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취득원가: 취득대금 240,000원 +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비 40,000원 = 280,000원이다.
시제품 판매대금 20,000원은 기계장치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미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된 뒤 재배치를 위해 지출한 운반비 50,000원과 설치원가 50,000원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한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다.

사용할 공식

정액법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 내용연수이다.
손상차손은 장부금액-회수가능액이다.
손상차손환입 후 장부금액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손상 전후의 장부금액과 환입 한도를 함께 구해야 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20x1년 감가상각비는 280,000 ÷ 4 = 70,000원이므로, 손상 인식 직전 장부금액은 280,000 − 70,000 = 210,000원이다.
2. 20x1년 말 회수가능액은 150,000원과 120,000원 중 큰 150,000원이다. 따라서 손상차손은 210,000 − 150,000 = 60,000원이고 손상 후 장부금액은 150,000원이다.
3. 20x2년 감가상각비는 손상 후 장부금액을 잔여 내용연수 3년으로 나눈 150,000 ÷ 3 = 50,000원이다. 환입 직전 장부금액은 100,000원이다.
4. 20x2년 말 회수가능액은 160,000원과 170,000원 중 큰 170,000원이다. 다만 손상이 없었다면 장부금액은 280,000 − 70,000 × 2 = 140,000원이므로 환입 후 장부금액은 140,000원이 한도이다. 따라서 환입액은 140,000 − 100,000 = 40,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20x1년 손상차손은 45,000원이 아니라 60,000원이다. 시제품 판매대금 20,000원을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면 안 된다.
② X — 20x1년 감가상각비는 65,000원이 아니라 70,000원이다. 감가상각대상금액은 260,000원이 아니라 280,000원이다.
③ X — 20x2년 감가상각비는 40,000원이 아니라 50,000원이다. 20x1년 말 손상 후 장부금액 150,000원을 잔여 내용연수 3년 동안 정액 상각한다.
④ O — 20x2년 말 환입 직전 장부금액 100,000원에 손상차손환입액 40,000원을 더하면 장부금액은 140,000원이다.
⑤ X — 20x2년 손상차손환입액은 30,000원이 아니라 40,000원이다. 회수가능액 170,000원까지 모두 환입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 140,000원을 한도로 환입한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시제품 판매대금 20,000원을 기계장치 원가에서 차감하는 종전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이를 차감하면 취득원가 260,000원, 20x1년 감가상각비 65,000원, 손상차손 45,000원이라는 ①·②의 오답이 나온다. 또한 손상차손환입은 회수가능액까지 무제한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유형자산 문제는 먼저 사용 가능한 시점까지의 직접 관련 원가만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시험 과정의 생산물 판매대금은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그다음 감가상각, 손상, 다음 연도 감가상각, 환입 한도의 순서로 장부금액을 이어서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시제품 판매대금은 원가 차감이 아니며, 손상환입의 상한은 손상이 없었을 장부금액이다.

NoteBase

문 6. (주)세무는 20x1년 7월 1일 공장건물 신축을 시작하여 20x2년 12월 31일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동 공장건물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이다. 공장건물 신축을 위해 20x1년 7월 1일에 ₩12,000,000, 그리고 20x2년에 ₩10,000,000을 각각 지출하였다. (주)세무는 20x1년 7월 1일 공장건물 신축을 위한 특정차입금 ₩2,000,000(이자율 연 5%, 2년 후 일시 상환)을 차입하였다. (주)세무는 특정차입금 중 ₩1,000,000을 연 2% 이자지급조건의 정기예금에 20x1년 8월 1일부터 20x1년 10월 31일까지 예치하였다. (주)세무가 20x1년에 공장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150,000일 때, 20x1년 일반차입금에 대한 자본화이자율은? (단, 특정차입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지출액은 일반차입금으로 지출되었으며, 20x1년도에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실제 차입원가는 ₩520,000이다. 연평균 지출액과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한다.)

① 2%

② 3%

③ 4%

④ 5%

⑤ 6%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특정차입금의 자본화 차입원가를 먼저 구한 뒤, 총 자본화 차입원가에서 이를 차감하여 일반차입금 자본화액과 자본화이자율을 역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20x1년 지출액은 12,000,000원이고, 특정차입금은 2,000,000원이다. 특정차입금의 차입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이며, 그중 1,000,000원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예치하였다. 20x1년 총 자본화 차입원가는 150,000원이다. 20x2년 지출액 10,000,000원은 20x1년 자본화이자율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특정차입금 자본화액은 특정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에서 일시적 운용수익을 차감하여 구한다.
특정차입금 자본화액=특정차입금 이자비용-일시적 운용수익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은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을 일반차입금으로 조달한 연평균 지출액으로 나누어 구한다.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일반차입금 연평균 지출액
특정차입금 중 예치된 1,000,000원은 그 3개월 동안 건물 지출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같은 금액만큼 일반차입금으로 조달한 지출액이 증가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특정차입금 이자비용은 다음과 같다.
2,000,000× 5\%× (6)/(12)=50,000원
2. 정기예금 운용수익은 다음과 같다.
1,000,000× 2\%× (3)/(12)=5,000원
3. 특정차입금 자본화액은 50,000원에서 5,000원을 차감한 45,000원이다. 따라서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은 150,000원에서 45,000원을 차감한 105,000원이다.
4. 일반차입금 연평균 지출액은 기본적으로 특정차입금 2,000,000원을 제외한 10,000,000원의 6개월분이고, 여기에 특정차입금 1,000,000원을 예치한 3개월분을 더한다.
10,000,000× (6)/(12)+1,000,000× (3)/(12)=5,250,000원
5.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frac{105,000}{5,250,000} \times 100 = 2\%$
계산된 일반차입금 자본화액 105,000원은 실제 일반차입원가 520,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전액 자본화할 수 있다.

선지 판단

① O — 일반차입금 자본화액 105,000원을 연평균 지출액 5,250,000원으로 나누면 2%이므로 옳다.
② X — 3%라는 수치가 틀렸다. 올바른 자본화이자율은 2%이다.
③ X — 4%라는 수치가 틀렸다. 특정차입금 운용수익과 예치기간 중 늘어난 일반차입금 지출액을 반영하면 2%이다.
④ X — 5%라는 수치가 틀렸다. 5%는 특정차입금의 약정이자율이며,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은 2%이다.
⑤ X — 6%라는 수치가 틀렸다. 일반차입금 자본화액 105,000원과 연평균 지출액 5,250,000원을 사용한 올바른 값은 2%이다.

오답 포인트

특정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수익 5,000원은 특정차입금 자본화액에서 차감하지만, 예치된 1,000,000원은 그 3개월 동안 적격자산 지출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일반차입금 연평균 지출액에 추가해야 한다. 또한 실제 일반차입원가 520,000원은 자본화 한도이지 자본화이자율 계산의 분자나 분모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특정차입금 이자비용에서 일시적 운용수익을 차감한다. 다음으로 총 자본화액에서 특정차입금 자본화액을 빼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을 구하고, 이를 일반차입금으로 조달한 연평균 지출액으로 나눈다. 마지막으로 계산된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이 실제 일반차입원가를 초과하는지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특정차입금은 '실제 이자비용－일시적 운용수익', 일반차입금은 '자본화액÷연평균 지출액'이다. 특정차입금의 예치액은 예치기간 동안 일반차입금 조달 지출액을 늘린다.

NoteBase

문 7.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와 종업원급여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②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또는 주석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③ 비용의 기능별 분류 정보가 비용의 성격에 대한 정보보다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는데 유용하다.

④ 동일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비용의 상계표시가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을 반영한다면 그러한 거래의 결과는 상계하여 표시한다.

⑤ 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재무제표 표시에서 비용의 분류·공시, 특별손익 표시 금지, 상계 원칙, 이연법인세의 유동·비유동 분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감가상각비·종업원급여비용처럼 비용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보여 주고, 기능별 분류는 매출원가·판매비·관리비처럼 비용이 어느 기능에 사용되었는지를 보여 준다. 두 방법 중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지만, 미래현금흐름 예측에는 비용의 성격 정보가 유용하므로 기능별 분류를 사용하면 성격별 정보를 추가로 공시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 및 종업원급여비용 등 비용의 성격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공시한다. 기능별 분류 과정에서 가려질 수 있는 비용의 성격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② O — 수익이나 비용을 당기손익·기타포괄손익 보고서 또는 주석에서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항목이 중요하면 성격과 금액을 별도로 공시할 수는 있지만 특별손익으로 명명하지 않는다.
③ X — 틀린 표현은 '비용의 기능별 분류 정보가 비용의 성격에 대한 정보보다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이다. 올바르게는 비용의 성격에 대한 정보가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므로, 기능별 분류를 사용한 기업이 성격별 정보를 추가로 공시한다.
④ O — 동일 거래에서 생긴 수익과 관련 비용을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그 거래나 사건의 실질을 반영한다면 그 거래의 결과를 상계하여 표시한다. 이는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는 순액 표시를 인정하는 경우이다.
⑤ O — 재무상태표에서 자산·부채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유동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③은 기능별 분류가 기업에 따라 더 목적적합할 수 있다는 설명과 미래현금흐름 예측에 성격별 정보가 유용하다는 설명을 뒤바꾸었다. '목적적합한 표시방법의 선택'과 '미래현금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같은 말로 보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용 분류 문항에서는 먼저 성격별은 비용의 종류, 기능별은 비용의 용도를 나타낸다고 구분한다. 이어 기능별 분류를 선택해도 미래현금흐름 예측에 유용한 성격별 정보는 추가 공시한다는 원칙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기능별로 표시하면 성격별 정보를 보충한다. 미래현금흐름 예측의 핵심은 비용의 성격 정보이다.

NoteBase

문 8. 20x1년 초 (주)세무낙농은 우유 생산을 위하여 젖소 5마리(1마리당 순공정가치 ₩5,000,000)를 1마리당 ₩5,200,000에 취득하고 목장운영을 시작하였다. 20x1년 12월 25일에 처음으로 우유를 생산하였으며, 생산된 우유는 전부 1,000리터(ℓ)이다. 생산시점 우유의 1리터(ℓ)당 순공정가치는 ₩10,000이다. 20x1년 12월 27일 (주)세무낙농은 생산된 우유 중 500리터(ℓ)를 유가공업체인 (주)대한에 1리터(ℓ)당 ₩9,000에 판매하였다. 20x1년 말 목장의 실제 젖소는 5마리이고, 우유보관창고의 실제 우유는 500리터(ℓ)이다. 20x1년 말 젖소 1마리당 순공정가치는 ₩5,100,000이고 우유 1리터(ℓ)당 순실현가능가치는 ₩11,000이다. 위 거래가 (주)세무낙농의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① ₩9,000,000 증가

② ₩10,000,000 증가

③ ₩11,000,000 증가

④ ₩12,000,000 증가

⑤ ₩13,000,000 증가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 및 기말 순공정가치 변동, 수확한 농림어업생산물의 최초 측정, 판매손익을 모두 합산하여 당기순이익 영향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젖소 취득원가는 5마리 × 5,200,000원 = 26,000,000원이고, 취득일 순공정가치는 5마리 × 5,000,000원 = 25,000,000원이다.
기말 젖소 순공정가치는 5마리 × 5,100,000원 = 25,500,000원이다.
수확 시 우유의 순공정가치는 1,000리터 × 10,000원 = 10,000,000원이다.
판매한 우유는 500리터이며 판매대금은 4,500,000원, 수확 시 측정액을 기준으로 한 매출원가는 5,000,000원이다.
기말에 남은 우유 500리터의 원가는 5,000,000원이고 순실현가능가치는 5,500,000원이므로 평가손실은 없다.

사용할 공식

당기순이익 영향 = 생물자산 최초 인식손익 + 생물자산 순공정가치 변동손익 + 수확물 최초 인식이익 + 우유 판매손익 + 기말 재고자산 평가손익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 시와 보고기간 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차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수확한 우유는 수확 시점의 순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이 금액이 이후 재고자산의 원가가 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젖소 최초 인식손실: 25,000,000원 - 26,000,000원 = -1,000,000원이다.
2. 젖소 기말 순공정가치 변동이익: 25,500,000원 - 25,000,000원 = 500,000원이다.
3. 우유 수확 시 최초 인식이익: 1,000리터 × 10,000원 = 10,000,000원이다.
4. 우유 판매손실: 매출 4,500,000원 - 매출원가 5,000,000원 = -500,000원이다.
5. 기말 우유는 원가 5,000,000원이 순실현가능가치 5,500,000원보다 낮으므로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는다.
6. 전체 당기순이익 영향은 -1,000,000원 + 500,000원 + 10,000,000원 - 500,000원 = 9,000,000원 증가이다.

선지 판단

① O — 모든 관련 손익을 합산하면 당기순이익은 9,000,000원 증가한다.
② X — 10,000,000원 증가는 우유 수확 시 최초 인식이익만 본 금액으로, 젖소 관련 순손실 500,000원과 우유 판매손실 500,000원을 누락하였다. 올바르게는 9,000,000원 증가이다.
③ X — 11,000,000원 증가는 계산 결과보다 2,000,000원 과대하다. 특히 기말 우유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원가보다 높다는 이유로 평가이익 500,000원을 인식해서는 안 되며, 최초 인식손실과 판매손실도 반영해야 한다. 올바르게는 9,000,000원 증가이다.
④ X — 12,000,000원 증가는 각 단계의 손익을 합산한 9,000,000원보다 3,000,000원 과대하다. 생물자산의 취득원가와 순공정가치 차이 및 판매한 우유의 원가를 비용에서 제외할 수 없다. 올바르게는 9,000,000원 증가이다.
⑤ X — 13,000,000원 증가는 계산 결과보다 4,000,000원 과대하다. 기말 우유는 순실현가능가치까지 평가증할 수 없고, 젖소의 순공정가치 변동과 우유 판매손실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올바르게는 9,000,000원 증가이다.

오답 포인트

수확 시 우유 10,000,000원을 이익으로 인식한 뒤 판매 시 같은 우유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기말 우유의 순실현가능가치 11,000원은 원가 10,000원보다 높지만,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증하여 500,000원의 이익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물자산 문제는 취득 시 손익, 기말 순공정가치 변동손익, 수확 시 생산물 인식이익, 판매손익, 기말 재고평가손익을 각각 계산한 뒤 합산한다. 수확 시 순공정가치는 이후 재고자산의 원가가 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매손익과 기말평가를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생물자산은 순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수확물은 수확 시 순공정가치가 재고자산 원가가 된다.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NoteBase

문 9. 다음 중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은? (단, 금액은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① 법률에 따라 항공사의 항공기를 3년에 한 번씩 정밀하게 정비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② 법적규제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기업이 토지를 오염시켰지만, 이에 대한 법률 제정이 거의 확실한 경우

③ 보고기간 말 전에 사업부를 폐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았고, 고객들에게 다른 제품 공급처를 찾아야 한다고 알리는 서한을 보냈으며, 사업부의 종업원들에게는 감원을 통보한 경우

④ 기업이 토지를 오염시킨 후 법적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된 토지를 정화한다는 방침을 공표하고 준수하는 경우

⑤ 관련 법규가 제정되어 매연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당해 연도말까지 매연여과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법규위반으로 인한 벌과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충당부채의 인식요건, 특히 과거사건에서 생긴 현재의무가 기업의 미래 행동과 독립하여 존재하는지를 각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①은 장래 정비의무, ②와 ④는 토지오염 정화의무, ③은 구조조정의무, ⑤는 이미 발생한 법규 위반의 벌과금 의무에 관한 사례이다. 핵심은 단순히 미래에 지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보고기간 말 현재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는지이다.

핵심 개념

충당부채는 지출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이다.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의제의무는 기업의 공표된 방침이나 충분히 구체적인 발표 등으로 상대방에게 기업이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형성한 경우에 생긴다.

적용 기준

미래 영업을 계속해야만 발생하는 정비·설치 지출은 현재의무가 아니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반면 이미 발생한 오염, 이해관계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린 구조조정, 이미 발생한 법규 위반처럼 과거사건이 현재의무를 만들고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다면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항공기를 3년에 한 번 정밀 정비해야 한다는 법적 요구가 있더라도 보고기간 말 현재 장래 정비비를 지급할 현재의무는 없다. 기업은 항공기를 처분하거나 운항하지 않는 등 미래 행동으로 정비지출을 피할 수 있으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없다. 정비 관련 원가는 실제 정비가 이루어질 때 해당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② X — 토지를 이미 오염시킨 과거사건이 있고 관련 법률이 제정될 것이 거의 확실하면 그 의무를 법적의무로 보아 정화비용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다. 틀린 판단인 '법률이 아직 없으므로 인식할 수 없다'는 '법률 제정이 거의 확실하고 다른 인식요건도 충족하면 인식한다'로 고쳐야 한다.
③ X — 이사회 승인만으로는 부족하지만, 구체적인 폐쇄계획을 고객과 종업원에게 알려 계획대로 구조조정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형성했으므로 의제의무가 생긴다. 구조조정에 직접 수반되고 계속 영업과 관련되지 않는 지출에 대해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다. 틀린 판단인 '이사회 승인에 불과하여 인식할 수 없다'는 '영향받는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 의제의무가 생기면 인식한다'로 고쳐야 한다.
④ X — 기업이 오염된 토지를 정화한다는 방침을 공표하고 일관되게 준수해 왔다면 이해관계자에게 정화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된다. 토지오염이라는 과거사건도 발생했으므로 의제의무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다. 틀린 판단인 '법적의무가 없으므로 인식할 수 없다'는 '법적의무가 없어도 의제의무가 있으면 인식한다'로 고쳐야 한다.
⑤ X — 매연여과장치의 취득·설치비 자체는 미래 행동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충당부채가 아니다. 그러나 보고기간 말까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법규를 이미 위반했고 벌과금 부과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다면, 예상 벌과금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틀린 판단인 '설치비를 충당부채로 인식한다'는 '설치비가 아니라 이미 발생한 위반으로 지급 가능성이 높은 벌과금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법률에 따라'라는 표현만 보고 현재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기 쉽다. 법률상 요구가 있어도 장래의 운항 여부 등 기업의 미래 행동에 따라 지출을 피할 수 있다면 현재의무가 아니다. 반대로 ④는 법적의무가 없어도 공표하고 준수해 온 방침이 의제의무를 만들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보고기간 말 이전의 과거사건을 찾고, 그 결과 생긴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기업의 미래 행동과 독립하여 존재하는지 판단한다. 그다음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미래 정비·설치비는 현재의무가 아니고, 이미 발생한 오염·구조조정 의제의무·법규 위반 벌과금은 인식요건을 충족하면 충당부채가 된다.

문 10. (주)세무는 20x1년 1월 1일 소유하고 있는 장부금액 ₩1,000,000(공정가치 ₩900,000)인 기계장치를 (주)대한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장치와 교환하면서 (주)대한의 기계장치와의 공정가치 차이 ₩100,000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동 자산의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있다. (주)세무는 (주)대한과의 교환으로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에 대해 내용연수 4년과 잔존가치 ₩0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재평가모형(매년 말 평가)을 적용하고 있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장부금액을 조정할 때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전부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20x1년 말과 20x2년 말의 공정가치는 각각 ₩570,000과 ₩420,000이다. 위 거래가 (주)세무의 20x2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하며 감가상각비 중 자본화한 금액은 없다.)

① ₩130,000 감소

② ₩160,000 감소

③ ₩190,000 감소

④ ₩220,000 감소

⑤ ₩250,000 감소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상업적 실질이 있는 비화폐성자산 교환의 취득원가를 구한 뒤 재평가모형에서 감가상각비와 재평가증가액의 당기손익 반영액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교환으로 넘긴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900,000원이고 현금 100,000원을 수취했으므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최초 장부금액은 800,000원이다. 내용연수는 4년, 잔존가치는 0원이며 정액법을 적용한다. 20x1년 말 공정가치는 570,000원, 20x2년 말 공정가치는 42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은 20x2년 감가상각비와 재평가손익을 합한 당기순이익 감소액이다.

사용할 공식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 수취한 현금
$900{,}000 - 100{,}000 = 800{,}000$
정액법 감가상각비 = 재평가 직후 장부금액 ÷ 남은 내용연수
재평가증가액은 같은 자산에 관하여 과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을 되돌리는 범위까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초과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상업적 실질이 있으므로 취득 기계장치의 최초 장부금액은 800,000원이다.
2. 20x1년 감가상각비는 800,000원 ÷ 4년 = 200,000원이고,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은 600,000원이다. 이를 공정가치 570,000원으로 낮추면서 30,000원의 재평가손실을 20x1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 20x2년 초 장부금액 570,000원을 남은 내용연수 3년으로 상각하므로 20x2년 감가상각비는 190,000원이다.
4.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은 380,000원이고 연말 공정가치는 420,000원이므로 재평가증가액은 40,000원이다. 이 중 과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손실을 되돌리는 30,000원은 20x2년 재평가이익이고, 나머지 10,000원은 기타포괄손익인 재평가잉여금이므로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5. 따라서 20x2년 당기순이익 영향은 감가상각비 190,000원 감소와 재평가이익 30,000원 증가를 합한 160,000원 감소이다.

선지 판단

① X — 130,000원 감소는 계산된 160,000원 감소보다 30,000원 적다. 올바르게는 160,000원 감소이다.
② O — 감가상각비 190,000원에서 당기손익으로 환입되는 재평가이익 30,000원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은 160,000원 감소한다.
③ X — 190,000원 감소는 감가상각비만 반영하고 과거 재평가손실의 환입액 30,000원을 누락한 값이다. 올바르게는 160,000원 감소이다.
④ X — 220,000원 감소는 20x2년의 30,000원을 재평가이익이 아니라 추가 손실처럼 반영한 값이다. 20x2년에는 과거 재평가손실을 되돌리는 30,000원이 당기손익상 이익이므로 올바르게는 160,000원 감소이다.
⑤ X — 250,000원 감소는 20x2년 비용 190,000원과 당기손익상 재평가이익 30,000원의 순효과와 맞지 않는다. 재평가증가액 중 당기손익 반영액은 비용이 아니라 이익이므로 올바르게는 160,000원 감소이다.

오답 포인트

20x2년 말 재평가증가액 40,000원 전부가 당기순이익을 늘리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같은 자산의 재평가감소액 30,000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했으므로 그 범위인 30,000원만 당기손익으로 환입되고, 초과액 10,000원은 기타포괄손익으로 간다. 또한 20x1년의 교환손실과 재평가손실은 20x2년 당기순이익에 다시 포함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교환 취득원가를 확정한 뒤 연도별로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를 비교한다. 재평가증가가 나오면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같은 자산의 재평가감소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환입액까지만 당기손익에 포함한다.

암기 포인트

재평가증가액은 과거 당기손익상 재평가손실의 환입분만 당기이익이고, 나머지는 기타포괄손익이다. 이 문항은 190,000원 비용 - 30,000원 이익 = 160,000원 순감소이다.

NoteBase

문 11. (주)세무는 사채(사채권면상 발행일 20x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8%, 만기 3년, 매년 말 이자지급)를 20x1년 4월 1일에 발행하고 사채발행비용 ₩1,000을 지출하였다. 사채권면상 발행일인 20x1년 1월 1일의 시장이자율은 연 10%이며, 실제 발행일(20x1년 4월 1일)의 시장이자율은 연 12%이다. 동 사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했을 경우 20x1년 4월 1일의 장부금액은?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구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8%	10%	12%	8%	10%	12%
3년	0.7938	0.7513	0.7118	2.5771	2.4868	2.4018

① ₩910,062

② ₩911,062

③ ₩953,000

④ ₩954,000

⑤ ₩1,000,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실제 발행일의 시장이자율 12%로 사채의 공정가치를 계산하고, 이자지급일 사이에 발행된 사채의 경과이자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의 거래원가 처리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액면금액은 ₩1,000,000, 연간 표시이자는 ₩80,000(₩1,000,000 × 8%), 만기는 3년이다. 실제 발행일의 시장이자율 12%와 표의 3년 현가계수 0.7118 및 2.4018을 사용한다.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의 3개월 경과이자는 표시이자율로 ₩20,000이며, 사채발행비용 ₩1,000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므로 금융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사채권면상 발행일의 현재가치 = 액면금액의 현재가치 + 이자연금의 현재가치
실제 발행일까지의 가치 = 권면상 발행일의 현재가치 × 1 + 12% × 3/12
금융부채 장부금액 = 실제 발행일까지의 가치 - 표시이자 경과분

실제 발행일의 공정가치는 그날의 시장이자율 12%를 반영해야 한다. 실제 발행일까지 유효이자율로 증가시킨 금액에는 투자자가 함께 지급하는 표시이자 경과분이 포함되므로 이를 분리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연간 표시이자: ₩1,000,000 × 8% = ₩80,000
2. 20x1년 1월 1일 현재가치: ₩1,000,000 × 0.7118 + ₩80,000 × 2.4018 = ₩903,944
3. 20x1년 4월 1일까지 3개월간 유효이자: ₩903,944 × 12% × 3/12 = ₩27,118.32
4. 실제 발행일까지의 가치: ₩903,944 + ₩27,118.32 = ₩931,062.32
5. 표시이자 경과분: ₩1,000,000 × 8% × 3/12 = ₩20,000
6.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931,062.32 - ₩20,000 = ₩911,062.32 ☒ ₩911,062

사채발행비용 ₩1,000은 비용으로 인식하며 위 장부금액을 줄이지 않는다.

선지 판단

① X — ₩910,062는 올바른 장부금액 ₩911,062에서 사채발행비용 ₩1,000을 잘못 차감한 금액이다. 올바르게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의 거래원가를 즉시 비용 처리하고 장부금액은 ₩911,062로 인식한다.
② O — 실제 발행일의 시장이자율 12%로 계산하고 표시이자 경과분을 분리하면 장부금액은 ₩911,062이다.
③ X — ₩953,000은 권면상 발행일의 시장이자율 10%를 잘못 적용해 얻는 ₩954,000에서 발행비용 ₩1,000까지 차감한 금액이다. 올바르게는 실제 발행일의 시장이자율 12%를 적용하고 발행비용을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아 ₩911,062가 된다.
④ X — ₩954,000은 실제 발행일의 12%가 아니라 권면상 발행일의 시장이자율 10%를 적용할 때 나오는 금액이다. 올바르게는 실제 발행일의 시장이자율 12%를 적용하여 ₩911,062로 측정한다.
⑤ X — ₩1,000,000은 액면금액일 뿐 실제 발행일의 공정가치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미래 원금과 이자를 시장이자율 12%로 평가하여 ₩911,062로 측정한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세 가지이다. 권면상 발행일의 시장이자율 10%가 아니라 실제 발행일의 시장이자율 12%를 사용하고, 실제 발행일까지 증가시킨 금액에서 표시이자 경과분 ₩20,000을 분리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의 발행비용 ₩1,000을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자지급일 사이에 사채를 발행하면 실제 발행일 시장이자율로 공정가치를 계산한 뒤 경과기간의 표시이자를 분리한다. 금융부채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이면 거래원가는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즉시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암기 포인트

실제 발행일 시장이자율 적용 → 경과 표시이자 분리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의 거래원가는 즉시 비용 처리이다.

NoteBase

문 12. (주)세무의 20x1년 초 상품재고액은 ₩100,000(재고자산평가충당금 ₩0)이다. (주)세무의 20x1년과 20x2년의 상품매입액은 각각 ₩500,000과 ₩600,000이며, 기말상품재고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는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과 정상적인 재고자산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반영하고, 비정상적인 재고자산감모손실은 기타비용에 반영하고 있다. (주)세무의 20x2년도 매출원가는?

항목	장부수량	실제수량	정상감모수량	단위당 취득원가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20×1년 말	450개	400개	20개	₩300	₩250
20×2년 말	650개	625개	10개	₩350	₩330

① ₩481,000

② ₩488,500

③ ₩496,000

④ ₩501,000

⑤ ₩523,5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기말 장부수량과 실제수량의 차이를 정상감모와 비정상감모로 나누고, 전기 말과 당기 말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차이까지 반영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20×1년 말 실제수량은 400개이고 단위당 취득원가는 300원, 순실현가능가치는 250원이므로 20×2년 기초상품재고액은 120,000원이고 기초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20,000원이다.
20×2년 말 장부수량은 650개, 실제수량은 625개이므로 감모수량은 25개이다. 이 중 정상감모는 10개이고 비정상감모는 15개이다.
정상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하지만 비정상감모손실은 기타비용이므로 매출원가에서 제외한다.

사용할 공식

매출원가=기초상품재고액+당기매입액-기말장부재고액+정상감모손실-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액
장부수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말재고에서 정상감모분을 매출원가에 더하고, 비정상감모분은 기타비용으로 별도 처리하기 때문에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20×2년 기초상품재고액은 400개 × 300원 = 120,000원이다.
2. 20×2년 말 장부재고액은 650개 × 350원 = 227,500원이다.
3. 평가 전 매출원가는 120,000원 + 600,000원 - 227,500원 = 492,500원이다.
4. 정상감모손실은 10개 × 350원 = 3,500원이므로 이를 더하면 496,000원이다. 비정상감모손실 15개 × 350원 = 5,250원은 기타비용이므로 더하지 않는다.
5. 기초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400개 × (300원 - 250원) = 20,000원이고, 기말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625개 × (350원 - 330원) = 12,500원이다. 따라서 7,500원의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이 발생한다.
6. 20×2년 매출원가는 496,000원 - 7,500원 = 488,5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481,000원은 평가손실환입 7,500원을 두 번 차감한 금액이다. 환입액은 한 번만 차감하므로 올바른 금액은 488,500원이다.
② O — 정상감모손실 3,500원을 포함하고 평가손실환입 7,500원을 차감하면 매출원가는 488,500원이다.
③ X — 496,000원은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을 반영하기 전 금액이다. 7,500원을 차감한 488,5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501,000원은 기말 재고자산평가충당금 12,500원을 올바른 매출원가 488,500원에 다시 더한 금액이다. 당기에는 평가손실이 아니라 7,500원의 환입이 발생하므로 488,500원이 맞다.
⑤ X — 523,500원은 정상감모손실만 포함하고 비정상감모손실은 기타비용으로 제외하며 평가손실환입을 차감하는 계산과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금액은 488,500원이다.

오답 포인트

20×2년 기초재고를 순액 100,000원으로 바로 넣으면 평가충당금의 증감을 중복 반영하게 된다. 기초와 기말 재고를 취득원가 총액으로 놓고, 기초 충당금 20,000원과 기말 충당금 12,500원의 감소액 7,500원을 평가손실환입으로 별도 차감해야 한다. 또한 정상감모만 매출원가에 포함하고 비정상감모는 기타비용으로 분리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장부수량으로 평가 전 매출원가를 계산한 뒤 정상감모손실만 더하고, 기초·기말 평가충당금의 증감을 반영한다. 비정상감모손실은 매출원가 계산에서 빼고 기타비용으로 분류한다.

암기 포인트

정상감모는 매출원가, 비정상감모는 기타비용이다. 평가충당금이 감소하면 그 차액은 평가손실환입이 되어 매출원가를 줄인다.

NoteBase

문 13. 다음은 (주)세무 및 그 종속기업인 (주)한국과 관련된 자료이다.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 (주)세무는 20x1년 1월 1일 (주)한국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의 60%를 ₩700,000에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 취득일 현재 (주)한국의 재무상태표상 자본총액은 ₩1,000,000(자본금 ₩700,000, 이익잉여금 ₩300,000)이다.
○ 취득일 현재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이 서로 다른 자산은 재고자산(장부금액 ₩300,000, 공정가치 ₩350,000)이 유일하고, 부채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동일하다.
○ (주)한국은 상기 재고자산의 70%를 20x1년도 중 연결실체 외부에 판매하였고, 나머지는 20x1년 말까지 보유하고 있다.
○ 20x1년도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은 ₩50,000이고, 취득일 이후 (주)세무와 (주)한국 간의 내부거래는 없다.
○ (주)세무가 20x1년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한 연결당기순이익은 ₩100,000이다.
○ 영업권과 관련된 손상차손은 고려하지 않으며,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 20x1년 말 현재 (주)한국은 (주)세무의 유일한 종속기업이다.

① (주)세무가 20x1년 말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영업권은 ₩100,000이다.
② (주)세무가 20x1년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연결당기순이익 중 비지배주주에 귀속되는 부분은 ₩15,000이다.
③ (주)세무가 20x1년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연결당기순이익 중 지배기업소유주에 귀속되는 부분은 ₩85,000이다.
④ (주)세무가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원가법을 적용하여 표시한 20x1년도의 별도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91,000이다.
⑤ (주)세무가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을 적용하여 표시한 20x1년도의 별도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94,000이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취득일의 순자산 공정가치 조정이 영업권, 연결당기순이익의 귀속, 원가법·지분법 별도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조건 정리

취득일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장부상 자본 1,000,000원에 재고자산 공정가치 증가액 50,000원을 더한 1,050,000원이다.
재고자산 공정가치 증가액 중 당기에 판매된 70%인 35,000원은 연결조정에서 매출원가에 추가되므로, 종속기업의 조정 후 당기순이익은 15,000원이다.
비지배지분율은 40%이며 비지배지분은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측정한다.

사용할 공식

영업권=이전대가-지배기업 지분 상당 순자산 공정가치
조정 후 종속기업 이익=50,000-(350,000-300,000)×70\%=15,000
비지배주주 귀속이익=조정 후 종속기업 이익×40\%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높은 재고가 외부에 판매되면 그 차액만큼 연결 매출원가가 증가한다. 따라서 보고된 종속기업 이익이 아니라 공정가치 조정을 반영한 이익을 지배기업과 비지배주주에게 배분한다.

계산 과정

1. 영업권은 700,000원에서 지배기업 지분 상당 순자산 공정가치 630,000원(1,050,000원 × 60%)을 차감한 70,000원이다.
2. 종속기업의 조정 후 이익은 50,000원에서 재고자산 공정가치 증가액의 실현분 35,000원을 차감한 15,000원이다.
3. 비지배주주 귀속이익은 15,000원 × 40% = 6,000원이고, 지배기업소유주 귀속이익은 연결당기순이익 100,000원에서 6,000원을 차감한 94,000원이다.
4. 지배기업의 원가법 별도당기순이익을 P라고 하면 100,000원 = P + 15,000원이므로 P는 85,000원이다.
지분법에서는 조정 후 종속기업 이익 중 지배기업 지분 9,000원(15,000원 × 60%)을 인식하므로 별도당기순이익은 94,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영업권은 100,000원'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700,000원 - 1,050,000원 × 60% = 70,000원이다.
② X — '비지배주주 귀속 부분은 15,000원'이 틀렸다. 15,000원은 종속기업의 조정 후 전체 이익이고, 올바른 비지배주주 귀속액은 15,000원 × 40% = 6,000원이다.
③ X — '지배기업소유주 귀속 부분은 85,000원'이 틀렸다. 85,000원은 원가법을 적용한 지배기업의 별도당기순이익이며, 올바른 지배기업소유주 귀속액은 100,000원 - 6,000원 = 94,000원이다.
④ X — '원가법 별도당기순이익은 91,000원'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연결당기순이익 100,000원에서 종속기업의 조정 후 이익 15,000원을 제외한 85,000원이다.
⑤ O — 지분법 별도당기순이익은 원가법 별도당기순이익 85,000원에 지배기업 지분의 조정 후 종속기업 이익 9,000원을 더한 94,000원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재고자산 공정가치 증가액 50,000원 전부를 당기 이익에서 빼거나, 조정 후 종속기업 이익 15,000원을 곧바로 비지배주주 귀속액으로 보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당기에 외부 판매된 70%만 비용화하고, 그 조정 후 이익을 지분율 60%와 40%로 배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취득일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조정한 뒤 영업권을 계산하고, 공정가치 차이의 당기 실현분을 종속기업 이익에 반영한 다음, 조정 후 이익을 지배기업과 비지배주주 지분율로 배분한다. 원가법 별도이익과 지분법 별도이익은 지배기업 지분의 조정 후 종속기업 이익만큼 차이 난다.

암기 포인트

공정가치 증가 재고의 판매분은 연결 매출원가 증가이며, 조정 후 종속기업 이익을 지분율로 나눈다. 이 문항의 핵심 수치는 영업권 70,000원, 조정 후 종속기업 이익 15,000원, 비지배주주 귀속 6,000원, 지배기업소유주 귀속 및 지분법 별도이익 94,000원이다.

NoteBase

문 14. (주)세무는 20x1년 1월 1일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 300명에게 20x4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임직원 1명당 주식선택권 10개씩을 부여하였다. 주식선택권 부여일 현재 동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200이다. 동 주식선택권은 20x5년 1월 1일부터 행사할 수 있다. 20x2년 1월 1일 (주)세무는 주가가 크게 하락하여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하였다. 이러한 조정으로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20 증가하였다. (주)세무는 20x1년 말까지 상기 주식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중 20%가 퇴사할 것으로 예상하여, 주식선택권의 가득률을 80%로 추정하였으나, 20x2년 말에는 향후 2년 내 퇴사율을 10%로 예상함에 따라 주식선택권의 가득률을 90%로 추정하였다. 부여한 주식선택권과 관련하여 (주)세무가 20x2년에 인식할 주식보상비용은?

① ₩120,000

② ₩150,000

③ ₩168,000

④ ₩240,000

⑤ ₩270,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가득기간 중 조건변경으로 공정가치가 증가한 경우, 최초 부여일 공정가치에 증분공정가치를 더하여 누적 보상비용을 계산하고 전기까지 인식한 금액을 차감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부여 인원은 300명, 1명당 주식선택권은 10개, 최초 단위당 공정가치는 ₩200이다. 가득기간은 20x1년부터 20x4년까지 4년이다.
20x2년 말 예상 가득률은 90%이다.
20x2년 1월 1일의 유리한 조건변경으로 단위당 증분공정가치 ₩20이 발생하며, 증분공정가치는 변경일부터 남은 3년의 가득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20x1년에 이미 인식한 비용은 20x1년 말 예상 가득률 80%를 적용한 ₩120,000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C_t = B_t + I_t$
$E_t = C_t - C_{t-1}$

여기서 C_t는 당기 말 총 누적비용, B_t는 최초 부여분 누적비용, I_t는 증분공정가치 누적비용, E_t는 당기 비용이다.

조건변경이 종업원에게 유리하므로 최초 부여일 공정가치로 계산한 보상비용을 그대로 인식하면서 증가한 공정가치도 추가로 인식한다. 또한 근무조건의 예상 가득률은 매 보고기간 말 최신 추정치로 반영한다.

계산 과정

1. 20x1년 인식비용은 300명 중 80% × 1명당 10개 × 단위당 ₩200 × 4년 중 1년이므로 ₩120,000이다.

2. 20x2년 말 최초 부여분 누적비용은 300명 중 90% × 1명당 10개 × 단위당 ₩200 × 4년 중 2년이므로 ₩270,000이다.

3. 20x2년 말 증분공정가치 누적비용은 300명 중 90% × 1명당 10개 × 단위당 ₩20 × 변경 후 3년 중 1년이므로 ₩18,000이다.

4. 20x2년 당기 인식비용은 ₩270,000 + ₩18,000 - ₩120,000 = ₩168,000이다.

선지 판단

① X — ₩120,000은 20x1년에 이미 인식한 비용이다. 20x2년 비용으로는 틀리며, 올바른 금액은 ₩168,000이다.
② X — ₩150,000은 최초 부여분의 20x2년 추가비용인 ₩270,000-₩120,000만 계산하여 증분공정가치 ₩18,000을 누락한 금액이다. 올바른 금액은 ₩168,000이다.
③ O — 최초 부여분 누적비용 ₩270,000과 증분공정가치 누적비용 ₩18,000을 합한 뒤 20x1년 인식액 ₩120,000을 차감하면 ₩168,000이다.
④ X — ₩240,000은 20x2년 말 누적비용과 당기 비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변경된 가득률·증분공정가치·전기 인식액을 올바르게 함께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다. 올바른 금액은 ₩168,000이다.
⑤ X — ₩270,000은 최초 부여일 공정가치에 따른 20x2년 말 누적비용일 뿐이다. 증분공정가치 ₩18,000을 더하고 전기 인식액 ₩120,000을 차감해야 하므로 올바른 20x2년 비용은 ₩168,000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가장 큰 함정은 ₩270,000을 20x2년 당기 비용으로 보는 것이다. 이 금액은 최초 부여분의 누적비용이므로 전기 인식액을 차감해야 하고, 유리한 조건변경에서 생긴 증분공정가치도 별도로 더해야 한다. 증분공정가치의 기간비율은 최초 부여일부터가 아니라 변경일인 20x2년 1월 1일부터 가득일인 20x4년 12월 31일까지의 3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득기간 중 유리한 조건변경 문제에서는 먼저 최초 부여일 공정가치로 누적비용을 계산하고, 증분공정가치를 변경일부터 남은 가득기간에 배분하여 더한다. 그 합계에서 전기까지 인식한 누적비용을 차감하면 당기 비용이 된다. 예상 가득인원은 각 보고기간 말의 최신 추정치를 사용한다.

암기 포인트

유리한 조건변경은 '원래 공정가치 유지 + 증가분 추가'이고, 당기 비용은 '기말 누적비용 - 전기 누적비용'이다.

NoteBase

문 15. (주)세무의 20x1년 초 자본총계는 ₩3,000,000이었다. 20x1년 중 자본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x1년 말 자본총계는?

◯ 4월 1일 : 1주당 액면금액 ₩5,000인 보통주 100주를 1주당 ₩12,000에 발행하였다.
◯ 7월 30일 : 이사회에서 총 ₩200,000의 중간배당을 결의하고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10월 1일 : 20주의 보통주(자기주식)를 1주당 ₩11,000에 취득하였다.
◯ 11월 30일 : 10월 1일에 취득하였던 보통주(자기주식) 중에서 10주는 1주당 ₩13,000에 재발행하였고, 나머지 10주는 소각하였다.
◯ 12월 31일 : 20x1년도의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이익으로 각각 ₩850,000과 ₩130,000을 보고하였다.

① ₩4,040,000
② ₩4,470,000
③ ₩4,690,000
④ ₩4,760,000
⑤ ₩4,890,000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기초 자본총계에 유상증자, 배당, 자기주식 거래, 당기순이익 및 기타포괄이익이 미치는 증감액을 반영하여 기말 자본총계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기초 자본총계: 3,000,000원
주식 발행: 현금 유입액 100주 × 12,000원 = 1,200,000원만큼 자본 증가
중간배당: 200,000원만큼 자본 감소
자기주식 취득: 20주 × 11,000원 = 220,000원만큼 자본 감소
자기주식 재발행: 10주 × 13,000원 = 130,000원만큼 자본 증가
나머지 자기주식 소각: 자본 내부 항목의 대체이므로 자본총계에는 영향 없음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이익: 각각 850,000원과 130,000원만큼 자본 증가

사용할 공식

기말 자본총계=기초 자본총계+소유주와의 자본거래 증감+총포괄이익
자본총계는 자본 내부의 세부 계정명이 아니라 기업에 유입되거나 유출된 금액과 총포괄이익만큼 변하므로 이 관계를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주식 발행으로 자본은 액면금액 500,000원이 아니라 실제 발행대금 1,200,000원만큼 증가한다. 액면초과액 700,000원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자본에 포함된다.
2. 중간배당 200,000원과 자기주식 취득원가 220,000원은 자본에서 차감한다.
3. 자기주식 10주의 재발행대금 130,000원은 자본을 증가시킨다. 재발행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이 20,000원도 자본 내부에서 처리된다.
4. 나머지 자기주식 10주의 소각은 자본금·자본잉여금 등 자본 내부 항목만 바꾸므로 자본총계의 추가 증감은 없다.
5. 당기순이익 850,000원과 기타포괄이익 130,000원을 더한다.

3,000,000+1,200,000-200,000-220,000+130,000+850,000+130,000=4,890,000원

선지 판단

① X — 4,040,000원은 위 계산에서 당기순이익 850,000원을 누락한 금액이다.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므로 올바른 기말 자본총계는 4,890,000원이다.
② X — 4,470,000원은 정확한 자본 증감액의 합계보다 420,000원 적다. 중간배당 200,000원과 자기주식 취득 220,000원을 차감한 뒤에도 자기주식 재발행대금 130,000원과 총포괄이익 980,000원을 모두 반영해야 하므로 올바른 금액은 4,890,000원이다.
③ X — 4,690,000원은 정확한 금액보다 200,000원 적어 중간배당을 두 번 차감한 경우에 해당한다. 중간배당은 200,000원을 한 번만 차감하므로 올바른 금액은 4,890,000원이다.
④ X — 4,760,000원은 기타포괄이익 130,000원을 누락한 금액이다. 기타포괄이익도 자본을 증가시키므로 올바른 금액은 4,890,000원이다.
⑤ O — 모든 자본 증감 항목을 반영한 계산 결과와 같은 4,89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주식 발행을 액면금액만큼만 증가시키거나, 자기주식 소각 때 자본총계를 다시 감소시키거나, 기타포괄이익을 누락하기 쉽다. 발행가액 전액은 자본에 들어오고, 자기주식 소각은 이미 취득 시 감소한 자본의 내부 재분류이며,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이익은 모두 자본을 증가시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초 자본총계에서 외부와의 거래로 들어온 금액은 더하고 나간 금액은 빼며,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이익을 더한다. 자기주식의 소각처럼 자본 내부 계정 사이의 대체만 일어나는 거래는 자본총계 증감에서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발행은 발행대금 전액만큼 자본 증가, 배당·자기주식 취득은 자본 감소, 총포괄이익은 자본 증가, 자기주식 소각은 자본총계 불변이다.

NoteBase

문 16. (주)세무는 고객에게 제품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수행의무로 식별하고, 제품을 고객에게 이전할 때 각각의 수행의무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고 있다. (주)세무는 (주)한국에게 제품A와 제품B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20x1년 12월 1일에 체결하였고, 동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는 총 ₩10,000이다. 동 계약에 따르면, 제품A를 먼저 인도한 후 제품B를 나중에 인도하기로 하였지만, 대가 ₩10,000은 모든 제품(제품A와 제품B)을 인도한 이후에만 받을 권리가 생긴다. (주)세무는 20x1년 12월 15일에 제품A를 인도하였고, 제품B에 대한 인도는 20x2년 1월 10일에 이루어졌으며, 20x2년 1월 15일에 대가 ₩10,000을 수령하였다. (주)세무는 제품A를 개별적으로 판매할 경우 ₩8,000에 판매하고 있지만, 제품B는 판매경험 및 유사제품에 대한 시장정보가 없어 개별판매가격을 알지 못한다. 따라서 잔여접근법으로 거래가격을 배분하기로 한다. (주)세무의 상기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제시된 거래의 효과만을 반영하기로 한다.)

① 20x1년 말 (주)세무의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수취채권의 금액은 영(0)이다.

② 20x1년 말 (주)세무의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계약자산의 금액은 ₩8,000이다.

③ (주)세무가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8,000이다.

④ 20x1년 말 (주)세무의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계약부채는 없다.

⑤ (주)세무의 20x2년 1월 10일 회계처리로 인하여 계약자산은 ₩2,000 증가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잔여접근법으로 거래가격을 각 수행의무에 배분한 뒤, 수행의무 이행 시점과 대가를 받을 권리의 조건 여부에 따라 수익·계약자산·수취채권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총 거래가격은 ₩10,000이다. 제품A의 개별판매가격은 ₩8,000이고, 제품B의 개별판매가격은 알 수 없어 잔여접근법을 적용한다. 제품A는 20x1년 12월 15일, 제품B는 20x2년 1월 10일에 인도한다. 대가 전액에 대한 권리는 두 제품을 모두 인도한 후에만 무조건적이 된다.

사용할 원리

잔여접근법에서는 제품B에 배분할 금액을 총 거래가격에서 제품A의 관측 가능한 개별판매가격을 뺀 잔액으로 정한다. 따라서 제품A에는 ₩8,000, 제품B에는 ₩2,000을 배분한다. 수행의무는 각 제품을 인도할 때 충족되므로 그때 배분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미 수행했지만 대가를 받을 권리에 다른 수행 조건이 남아 있으면 계약자산이고, 시간의 경과만 남은 무조건적 권리가 되면 수취채권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제품A 배분액은 ₩8,000이다.
2. 제품B 배분액은 ₩10,000에서 ₩8,000을 차감한 ₩2,000이다.
3. 20x1년 12월 15일에는 제품A를 인도했으므로 수익 ₩8,000과 계약자산 ₩8,000을 인식한다. 제품B 인도가 남아 있어 수취채권은 아직 인식하지 않는다.
4. 20x2년 1월 10일에는 제품B 인도로 수익 ₩2,000을 추가 인식하고, 대가 ₩10,000에 대한 권리가 무조건적이 되므로 수취채권 ₩10,000을 인식하면서 기존 계약자산 ₩8,000을 제거한다.

선지 판단

① O. 20x1년 말에는 제품B 인도라는 조건이 남아 있어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 권리가 없으므로 수취채권은 0이다.
② O. 제품A를 이미 인도하여 수익 ₩8,000을 인식했지만 대가 청구에는 제품B 인도가 남아 있으므로 같은 금액을 계약자산으로 표시한다.
③ O. 20x1년에 이행한 수행의무는 제품A의 인도이고, 제품A에 배분된 거래가격이 ₩8,000이므로 20x1년도 수익은 ₩8,000이다.
④ O. 계약부채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대가를 받았거나 받을 권리가 생긴 경우에 발생한다. 20x1년 말에는 대가를 받지 않았고 무조건적 청구권도 없으므로 계약부채가 없다.
⑤ X. 틀린 표현은 '계약자산은 ₩2,000 증가한다'이다. 제품B 인도로 수익 ₩2,000을 인식하는 동시에 전체 대가에 대한 권리가 무조건적이 되어 수취채권 ₩10,000을 인식하고 기존 계약자산 ₩8,000을 제거하므로, 올바르게는 계약자산이 ₩8,000 감소한다.

오답 포인트

⑤는 제품B의 수익 인식액 ₩2,000을 계약자산 증가액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제품B 인도가 완료되는 순간에는 새 계약자산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권리였던 기존 계약자산이 무조건적 수취채권으로 바뀐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거래가격을 수행의무별로 배분하고, 각 수행의무의 이행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다음 대가 청구에 시간의 경과 외 조건이 남아 있으면 계약자산, 조건이 모두 사라지면 수취채권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수행 완료＋추가 조건 존재＝계약자산, 수행 완료＋시간 경과만 남음＝수취채권이다.

NoteBase

문 17. 리스부채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시 리스료의 현재가치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증분차입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한다.

②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지급액 중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금액으로 구성된다.

③ 리스가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한다.

④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 후에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증액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감액한다.

⑤ 리스개시일 후 리스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여 리스부채의 재측정 금액을 인식하지만,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줄어들고 리스부채 측정치가 그보다 많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나머지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에 적용하는 할인율과 리스개시일 후의 후속 측정·재측정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한다. 할인율은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으면 그 이자율을 우선 적용하고, 쉽게 산정할 수 없을 때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리스개시일 후에는 이자만큼 리스부채를 늘리고 지급한 리스료만큼 줄이며, 리스료 변동에 따른 재측정액은 원칙적으로 사용권자산에 반영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할인율의 적용 순서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틀린 표현은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하고, 이를 쉽게 산정할 수 없으면 내재이자율을 사용한다'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으면 그 이자율을 사용하고, 쉽게 산정할 수 없을 때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한다.
② O — 최초 리스부채는 리스기간에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지급액 중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므로 옳다.
③ O — 리스 종료 전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면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감가상각하므로 옳다. 소유권 이전이 없고 매수선택권 행사도 합리적으로 확실하지 않다면 내용연수와 리스기간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④ O — 리스개시일 후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이자 발생액만큼 증가하고 실제 지급한 리스료만큼 감소하므로 옳다.
⑤ O — 리스료 변동으로 리스부채를 재측정하면 그 금액은 원칙적으로 사용권자산의 조정으로 인식한다. 다만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 0이 된 뒤에도 리스부채가 추가로 감소하면 남은 재측정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①은 내재이자율과 증분차입이자율의 우선순위를 서로 바꾼 함정이다. '쉽게 산정할 수 있는가'의 판단 대상은 먼저 리스의 내재이자율이며, 증분차입이자율은 그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대체 할인율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최초 측정에서는 '내재이자율 우선, 산정 곤란 시 증분차입이자율'의 순서를 확인한다. 후속 측정에서는 '이자는 부채 증가, 지급은 부채 감소, 재측정은 사용권자산 조정, 사용권자산이 0을 초과해 더 줄어드는 부분은 당기손익'의 흐름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내재이자율 우선, 산정 곤란 시 증분차입이자율이다. 이자는 부채를 늘리고 지급은 부채를 줄인다.

NoteBase

문 18. (주)세무의 20x1년도 주당이익 계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20x1년도 기본주당순이익은?

◯ (주)세무의 20x1년 초 유통보통주식수는 800주이며, 우선주는 모두 비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이다.
◯ (주)세무는 20x1년 4월 1일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보통주 300주를 추가발행하였다. 동 유상증자시 발행금액은 1주당 ₩1,000이었으나, 유상증자 전일의 보통주 종가는 1주당 ₩1,500이었다.
◯ (주)세무는 20x1년 10월 1일 보통주(자기주식) 60주를 취득하여 20x1년 말까지 보유하고 있다.
◯ 20x1년도 우선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결의된 배당금은 ₩50,000이다.
◯ (주)세무의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575,300이다.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계산하고, 유상증자의 경우 발행금액 전액이 발행일에 납입완료되었다.

① ₩495
② ₩498
③ ₩500
④ ₩505
⑤ ₩510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기본주당순이익의 분자에서는 비누적적 우선주의 당기 배당결의액을 차감하고, 분모에서는 할인 유상증자의 무상증자 요소와 자기주식 취득 시점을 반영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당기순이익은 ₩575,300이고, 비누적적 우선주에 대해 당기에 지급하기로 결의한 배당금은 ₩50,000이다.
기초 유통보통주는 800주이며, 4월 1일 300주를 주당 ₩1,000에 유상증자하였다. 유상증자 전일의 종가는 주당 ₩1,500이므로 할인 발행에 따른 무상증자 요소를 반영한다.
10월 1일 취득한 자기주식 60주는 그날부터 유통주식수에서 제외하며, 월할 계산한다.

사용할 공식

EPS=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비누적적 우선주는 당기에 배당이 결의된 금액만 분자에서 차감한다. 할인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에게 무상증자 요소가 생기므로 유상증자 이전의 유통주식수를 조정계수로 소급 조정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
₩575,300 - ₩50,000 = ₩525,300

2. 유상증자의 이론적 권리락주가
(800주 × ₩1,500 + 300주 × ₩1,000) ÷ 1,100주 = ₩1,363.636…

3. 무상증자 요소의 조정계수
₩1,500 ÷ ₩1,363.636… = 1.1

4.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유상증자 전 3개월: 800주 × 1.1 × 3/12 = 220주
유상증자 후 자기주식 취득 전 6개월: 1,100주 × 6/12 = 550주
자기주식 취득 후 3개월: (1,100주 - 60주) × 3/12 = 260주
합계: 220주 + 550주 + 260주 = 1,030주

5. 기본주당순이익
₩525,300 ÷ 1,030주 = 주당 ₩510

선지 판단

① X — 주당 ₩495는 계산된 기본주당순이익 ₩510과 일치하지 않는다. '₩495'는 '₩510'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주당 ₩498은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 ₩525,300을 조정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030주로 나눈 값이 아니다. '₩498'은 '₩510'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주당 ₩500은 할인 유상증자의 무상증자 요소와 자기주식 취득을 모두 반영한 결과가 아니다. '₩500'은 '₩510'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주당 ₩505는 계산 결과 ₩510보다 ₩5 작다. '₩505'는 '₩510'으로 고쳐야 한다.
⑤ O — ₩525,300 ÷ 1,030주 = 주당 ₩510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할인 유상증자 300주를 단순히 발행일부터 가중하는 데 그치면 안 된다. 주당 발행가액 ₩1,000이 유상증자 전 시가 ₩1,500보다 낮으므로 무상증자 요소가 있고, 유상증자 전 800주에도 조정계수 1.1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 또한 비누적적 우선주는 당기 배당결의액 ₩50,000만 차감하며, 10월 1일 취득한 자기주식 60주는 마지막 3개월 동안 분모에서 제외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당기순이익에서 보통주에 귀속되지 않는 우선주배당을 차감한다. 다음으로 유상증자 발행가액과 직전 시가를 비교하여 무상증자 요소의 존재를 확인하고, 존재하면 유상증자 전 주식수를 소급 조정한다. 마지막으로 발행·자기주식 취득 시점별 유통기간을 가중하여 분모를 구한다.

암기 포인트

할인 유상증자는 '권리락주가 계산 → 조정계수 산출 → 증자 전 주식수 소급 조정'의 순서로 처리한다.
자기주식은 취득일부터 유통주식수에서 제외한다.

NoteBase

문 19. 다음은 금융자산의 분류 및 재분류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ㄴ.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ㄷ.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한 결과로 발생한 인식이나 측정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ㄹ.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재분류일에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직접 대체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이를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따른 측정 범주, 공정가치선택권, 재분류 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처리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한 사업모형이고,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된 금융자산의 측정 범주이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를 모두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이고,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된 금융자산의 측정 범주이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앞의 두 측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에 적용하는 범주이며,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 시 지정할 수도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옳은 설명의 조합이 아니다. ㄴ의 '당기손익-공정가치'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② O — ㄱ과 ㄷ이 모두 옳다. ㄱ은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의 사업모형과 원금·이자만으로 된 현금흐름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상각후원가 측정 대상이다. ㄷ은 측정 또는 손익 인식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 최초 인식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③ X — ㄴ이 틀렸으므로 옳은 설명의 조합이 아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를 모두 목적으로 하고 현금흐름이 원금·이자만으로 구성되면 당기손익-공정가치가 아니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④ X — ㄴ과 ㄹ이 모두 틀렸다. ㄴ의 측정 범주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가 맞다. 또한 ㄹ의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직접 대체한다'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재분류일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한다.
⑤ X —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옳은 설명의 조합이 아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할 때 기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직접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오답 포인트

ㄴ에서는 '수취와 매도' 사업모형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착각하기 쉽다. 원금·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 요건까지 충족하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이다. ㄹ에서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자본 내 대체와 당기손익 재분류를 혼동하기 쉽다. 이 경우에는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는지 확인한 뒤 사업모형을 본다. 수취 목적이면 상각후원가, 수취와 매도 목적이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판단한다. 회계불일치 완화를 위한 최초 인식 시 지정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연결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재분류할 때 누계액은 당기손익으로 옮긴다.

암기 포인트

원금·이자 요건을 전제로 '수취는 상각후원가, 수취와 매도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때 누계액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문 20. (주)세무는 20x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조건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20x2년 초 상기 신주인수권의 60%가 행사되어 주식 60주가 발행되었다. 20x2년 초 상기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주)세무의 자본총계 증가액은? (단, 상기 신주인수권은 지분상품에 해당하며, 현재가치 계산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 액면금액 : ₩100,000
◯ 표시이자율 : 연 4%
◯ 사채발행시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지 않은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 : 연 6%
◯ 이자지급일 : 매년 12월 31일
◯ 행사가격 : 1주당 ₩1,000
◯ 만기상환일 : 20x3년 12월 31일
◯ 상환조건 : 신주인수권 미행사시 상환기일에 액면금액의 105%를 일시상환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4%	6%	4%	6%
1년	0.9615	0.9434	0.9615	0.9434
2년	0.9246	0.8900	1.8861	1.8334
3년	0.8890	0.8396	2.7751	2.6730

① ₩60,000
② ₩62,670
③ ₩63,000
④ ₩63,700
⑤ ₩65,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신주인수권 행사로 유입되는 현금과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소멸하는 상환할증금 관련 부채의 현재가치를 합산하여 자본총계 증가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조건 정리

행사가격은 1주당 ₩1,000이고 발행 주식 수는 60주이므로 행사대금은 ₩60,000이다.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만기에 액면금액의 105%를 상환하므로,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상환할증금은 ₩5,000이다.
20x2년 초에 신주인수권의 60%가 행사되므로 그 비율에 해당하는 상환할증금 ₩3,000의 지급의무가 소멸한다.
만기까지 남은 기간은 2년이고 할인율은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인 연 6%이다.

사용할 공식

자본총계 증가액=행사대금+소멸하는 상환할증금 관련 부채의 현재가치
상환할증금 지급의무는 만기에 지급할 단일금액이므로 2년, 6%의 단일금액 현가계수 0.8900을 적용한다.

계산 과정

1. 신주인수권 행사대금은 60주 × ₩1,000 = ₩60,000이다.
2. 행사비율에 해당하여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상환할증금은 ₩100,000 × 5% × 60% = ₩3,000이다.
3. 20x2년 초 현재 이 금액의 현재가치는 ₩3,000 × 0.8900 = ₩2,670이다.
4. 따라서 자본총계 증가액은 ₩60,000 + ₩2,670 = ₩62,670이다.

참고로 발행 시 인식한 신주인수권대가 중 행사분을 자본금 또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자본 내부의 계정 대체이므로 자본총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선지 판단

① X — ₩60,000은 행사대금만 반영한 금액으로, 행사에 따라 소멸하는 상환할증금 관련 부채의 현재가치 ₩2,670을 누락하였다. 올바른 자본총계 증가액은 ₩62,670이다.
② O — 행사대금 ₩60,000과 소멸하는 부채의 현재가치 ₩2,670을 합한 ₩62,670과 일치한다.
③ X — ₩63,000은 행사분 상환할증금 ₩3,000을 할인하지 않고 그대로 더한 금액이다. 만기까지 2년이 남았으므로 6% 단일금액 현가계수 0.8900을 적용한 ₩2,670을 더해야 하며, 올바른 금액은 ₩62,670이다.
④ X — ₩63,700은 행사대금에 더할 부채 감소액을 ₩3,700으로 본 금액이지만,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상환할증금 관련 부채는 ₩3,000의 2년 현재가치인 ₩2,670이다. 신주인수권대가의 자본 내부 대체도 자본총계 증가액에 다시 더하지 않는다. 올바른 금액은 ₩62,670이다.
⑤ X — ₩65,000은 전체 상환할증금 ₩5,000을 행사대금에 더한 금액으로, 행사비율 60%와 2년 현재가치 할인을 모두 무시하였다. 올바르게는 ₩5,000 × 60% × 0.8900 = ₩2,670만 더하므로 자본총계 증가액은 ₩62,670이다.

오답 포인트

신주인수권 행사대금만 자본 증가로 보는 실수와, 소멸하는 상환할증금을 액면금액으로 더하고 현재가치 할인을 빠뜨리는 실수가 핵심 함정이다. 또한 기존 신주인수권대가의 계정 대체는 자본 내부 이동이므로 자본총계 증가액에 중복하여 포함하지 않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건부 상환할증금이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 행사 시에는 행사대금을 먼저 구한 뒤, 행사로 소멸하는 상환할증금의 행사일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더한다. 기존 자본요소의 재분류는 자본총계 변동에서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자본총계 증가액은 행사대금과 소멸한 부채의 현재가치의 합이며, 자본 내부 대체는 제외한다.

NoteBase

문 21. (주)세무는 20x1년 초에 사채(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를 발행하였다. 20x1년 말 장부마감 과정에서 동 사채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오류를 발견하였다. (주)세무의 오류수정 전 20x1년도의 당기순이익이 ₩100,000인 경우, 오류를 수정한 후의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 사채의 발행일에 사채발행비 ₩9,500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사채의 발행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전액 20x1년도의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였다.
◯ 20x1년 초 사채의 발행금액(사채발행비 차감전)은 ₩274,000이고, (주)세무는 동 발행금액에 유효이자율 연 10%를 적용하여 20x1년도 이자비용을 인식하였다.
◯ 상기 사채발행비를 사채 발행금액에서 차감할 경우 사채발행시점의 유효이자율은 연 12%로 증가한다.

① ₩90,500
② ₩95,660
③ ₩104,340
④ ₩105,160
⑤ ₩109,5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사채발행비를 최초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조정된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비용과 당기순이익을 바로잡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오류수정 전 당기순이익: ₩100,000
사채발행금액: ₩274,000
사채발행비: ₩9,500
잘못 인식한 이자비용: ₩274,000에 연 10% 적용
올바른 최초 장부금액: 사채발행금액에서 사채발행비를 차감한 금액
올바른 유효이자율: 연 12%

사용할 공식

최초 장부금액=발행금액-사채발행비
이자비용=기초 장부금액×유효이자율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의 거래원가는 최초 장부금액에 반영되고, 이후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자비용으로 배분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올바른 최초 장부금액은 ₩274,000-₩9,500=₩264,500이다.
2. 올바른 이자비용은 ₩264,500 × 12% = ₩31,740이다.
3. 오류수정 전에는 사채발행비 ₩9,500과 이자비용 ₩274,000 × 10% = ₩27,400을 비용으로 인식했으므로 총비용은 ₩36,900이다.
4. 올바른 당기비용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 ₩31,740이므로 비용이 ₩5,160 감소한다.
5. 오류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100,000+₩5,160=₩105,160이다.

선지 판단

① X. ₩90,500은 오류수정 전 당기순이익에서 사채발행비 ₩9,500을 다시 차감한 값이다. 사채발행비는 이미 오류수정 전 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시 차감할 수 없으며, 올바른 금액은 ₩105,160이다.
② X. ₩95,660은 올바른 이자비용과 잘못 인식한 이자비용의 차이 ₩4,340을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면서, 이미 비용 처리한 사채발행비 ₩9,500을 되돌리지 않은 값이다. 사채발행비 비용 처리를 취소하고 유효이자율법상 이자비용으로 반영해야 하므로 올바른 금액은 ₩105,160이다.
③ X. ₩104,340은 이자비용 차이 ₩4,340을 당기순이익에 더한 값이다. 그러나 이자비용 자체는 ₩27,400에서 ₩31,740으로 증가하며, 별도로 사채발행비 ₩9,500의 즉시 비용 처리를 취소해야 하므로 올바른 금액은 ₩105,160이다.
④ O. 오류수정으로 사채발행비 즉시 비용 ₩9,500을 되돌리고 이자비용을 ₩4,340 늘리므로 당기순이익은 순액 ₩5,160 증가한 ₩105,160이다.
⑤ X. ₩109,500은 사채발행비 ₩9,500의 즉시 비용 처리만 취소하고 유효이자율 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4,340을 누락한 값이다. 이를 함께 반영한 올바른 금액은 ₩105,160이다.
계산 결과 ₩105,160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오답 포인트

사채발행비 ₩9,500을 단순히 당기비용에서 제거하는 데서 끝내면 ⑤를 고르게 된다. 거래원가를 차감한 최초 장부금액 ₩264,500에 더 높은 유효이자율 12%를 적용하여 이자비용도 ₩31,740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채발행비 오류수정 문제는 먼저 최초 장부금액을 순수취액으로 고치고, 그 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한 올바른 이자비용을 구한 뒤, 이미 기록한 총비용과의 차이만큼 당기순이익을 조정한다.

암기 포인트

사채발행비는 즉시 전액 비용이 아니라 최초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며, 유효이자율법을 통해 이자비용에 반영된다.

NoteBase

문 22. (주)세무의 20x1년도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가 20x1년도 현금흐름표에 보고할 영업활동순현금유입액은?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000,000
◯ 법인세비용 : ₩120,000 (20x1년 중 법인세납부액과 동일)
◯ 이자비용 : ₩30,000 (모두 사채의 이자비용이며,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을 포함함)
◯ 자산과 부채의 증감

계정과목	기초금액	기말금액
매출채권	₩200,000	₩210,000
재고자산	280,000	315,000
건 물	1,200,000	1,150,000
건물감가상각누계액	(380,000)	(370,000)
사 채	300,000	3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15,000)	(10,000)

◯ 20x1년 중 건물관련 거래가 (주)세무의 순현금흐름을 ₩30,000 증가시켰다.
◯ 20x1년 중 사채관련 거래가 (주)세무의 순현금흐름을 ₩25,000 감소시켰으며, 20x1년 중 사채의 발행 및 상환은 없었다.
◯ (주)세무는 간접법을 사용하여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산출하며, 이자지급 및 법인세납부는 영업활동으로 구분한다.

① ₩850,000
② ₩880,000
③ ₩890,000
④ ₩930,000
⑤ ₩970,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출발하여 운전자본 증감, 건물 관련 비현금·비영업 손익,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법인세 납부액을 조정하는 간접법 문제이다.

NoteBase

조건 정리

매출채권은 200,000원에서 210,000원으로 10,000원 증가하고, 재고자산은 280,000원에서 315,000원으로 35,000원 증가한다. 두 증가는 모두 영업현금흐름에서 차감한다.
건물 순장부금액은 820,000원(1,200,000원-380,000원)에서 780,000원(1,150,000원-370,000원)으로 40,000원 감소한다. 건물 관련 순현금유입은 30,000원이므로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익을 합친 간접법 순조정액은 10,000원 가산이다.
사채 액면금액은 변하지 않고 사채할인발행차금이 15,000원에서 10,000원으로 5,000원 감소하므로 5,000원이 상각되었다. 사채 관련 순현금유출 25,000원은 이자지급액이고, 이자비용 30,000원과의 차이 5,000원은 비현금 상각액이다.
법인세 납부액은 법인세비용과 같은 120,000원이며 영업활동에서 차감한다.

사용할 공식

간접법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CFO=PBT+비현금·비영업 조정-Δ AR-Δ INV-법인세 납부액
이 문제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주어졌으므로 여기서 출발해 실제 현금 유출입과 일치하지 않는 항목을 조정한다.

계산 과정

1. 운전자본 조정: 매출채권 증가 10,000원과 재고자산 증가 35,000원을 차감한다.
2. 건물 관련 조정: 순장부금액 감소 40,000원에서 투자활동 순현금유입 30,000원을 제외한 10,000원을 가산한다.
3. 사채 관련 조정: 이자비용 30,000원 중 현금지급액 25,000원을 초과하는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5,000원을 가산한다.
4. 법인세 납부액 120,000원을 차감한다.

따라서 1,000,000원 - 10,000원 - 35,000원 + 10,000원 + 5,000원 - 120,000원 = 850,000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 모든 간접법 조정을 반영한 영업활동순현금유입액은 850,000원이므로 옳다.
② X — 880,000원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법인세 납부액만 뺀 금액이다. 나머지 조정의 순액인 30,000원 감소도 반영해야 하므로 올바른 금액은 850,000원이다.
③ X — 890,000원은 세후 금액 880,000원에 건물 관련 조정액 10,000원만 더한 금액이다. 매출채권·재고자산 증가와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의 순효과인 40,000원 감소를 추가로 반영해야 하므로 올바른 금액은 850,000원이다.
④ X — 930,000원은 세후 금액 880,000원에 건물 총액 감소 50,000원을 그대로 가산하면 나오는 금액이다. 건물 총액 감소를 비현금비용으로 볼 수 없고, 건물 관련 순조정액 10,000원과 다른 조정을 함께 반영해야 하므로 올바른 금액은 850,000원이다.
⑤ X — 970,000원은 법인세 납부 전 영업활동현금흐름이다. 법인세 납부액 120,000원을 차감해야 하므로 올바른 금액은 85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건물의 장부금액 감소 40,000원을 감가상각비로 그대로 가산하면 안 된다. 건물 관련 현금흐름 30,000원과 연결하여 비현금·비영업 손익의 순조정액 10,000원만 구해야 한다. 또한 이자비용 30,000원 전액을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손익에 반영되었지만 현금이 나가지 않은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5,000원만 가산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간접법에서는 먼저 출발이익을 확인하고, 운전자본은 자산 증가를 차감하며, 비현금비용은 가산한다. 유형자산과 사채는 장부금액 증감만 보지 않고 제시된 현금흐름과 연결하여 손익에 포함된 비현금 부분만 조정한다.

암기 포인트

영업자산 증가분은 차감, 비현금비용은 가산, 법인세 현금납부액은 차감한다.

NoteBase

문 23. (주)세무의 20x2년도 법인세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x2년도 법인세비용은?

◯ 20x2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00,000
◯ 세무조정사항
- 전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80,000)
- 접대비한도초과액 ₩130,000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전기 이전 발생한 일시적차이의 소멸분이고, 접대비한도초과액은 일시적차이가 아니다.
◯ 20x2년 말 미소멸 일시적차이(전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는 ₩160,000이고, 20x3년과 20x4년에 각각 ₩80,000씩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x1년 말 이연법인세자산은 ₩48,000이고, 이연법인세부채는 없다.
◯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은 매우 높다.
◯ 적용될 법인세율은 매년 20%로 일정하고, 언급된 사항 이외의 세무조정 사항은 없다.

① ₩94,000
② ₩110,000
③ ₩126,000
④ ₩132,000
⑤ ₩148,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법인세비용을 당기법인세부담액과 이연법인세비용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500,000이다. 전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80,000은 일시적차이의 소멸분이므로 과세소득 계산에서 차감하고, 접대비한도초과액 ₩130,000은 영구적차이이므로 가산한다. 기초 이연법인세자산은 ₩48,000이고, 기말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160,000이며 세율은 20%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과세소득=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가산조정-차감조정
당기법인세부담액=과세소득×세율
기말 이연법인세자산=기말 차감할 일시적차이×세율
법인세비용=당기법인세부담액+이연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 과세소득에 대한 세액뿐 아니라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당기 변동도 반영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과세소득은 ₩500,000-₩80,000+₩130,000=₩550,000이다.
2. 당기법인세부담액은 ₩550,000×20%=₩110,000이다.
3. 기말 이연법인세자산은 ₩160,000×20%=₩32,000이다. 기초 ₩48,000에서 기말 ₩32,000으로 ₩16,000 감소하므로 이연법인세비용 ₩16,000이 발생한다.
4. 법인세비용은 ₩110,000+₩16,000=₩126,000이다.

선지 판단

① X. ₩94,000은 당기법인세부담액 ₩110,000에서 이연법인세자산 감소액 ₩16,000을 잘못 차감한 금액이다. 자산의 감소는 이연법인세비용이므로 더해야 하며, 올바른 금액은 ₩126,000이다.
② X. ₩110,000은 당기법인세부담액만 계산하고 이연법인세비용 ₩16,000을 누락한 금액이다. 이를 더한 ₩126,000이 법인세비용이다.
③ O. 당기법인세부담액 ₩110,000과 이연법인세비용 ₩16,000의 합계가 ₩126,000이므로 옳다.
④ X. ₩132,000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의 20%인 ₩100,000에 기말 이연법인세자산 잔액 ₩32,000을 더한 금액이다. 법인세비용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기말 잔액이 아니라 당기 변동액을 반영하므로 올바른 금액은 ₩126,000이다.
⑤ X. ₩148,000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의 20%인 ₩100,000에 기초 이연법인세자산 잔액 ₩48,000을 더한 금액이다. 기초 잔액 자체를 비용으로 더할 수 없으며, 올바른 금액은 ₩126,000이다.

오답 포인트

접대비한도초과액은 영구적차이이므로 과세소득과 당기법인세부담액에는 영향을 주지만 이연법인세를 만들지 않는다. 또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잔액이 아니라 기초와 기말의 변동액을 법인세비용에 반영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이 감소하면 비용이 증가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세무조정으로 과세소득과 당기법인세부담액을 계산한다. 다음으로 기말 일시적차이에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기말 잔액을 구하고, 기초 대비 변동이 비용인지 수익인지 판단하여 합산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이연법인세자산 감소는 비용 증가, 이연법인세자산 증가는 비용 감소이다. 영구적차이는 이연법인세를 만들지 않는다.

NoteBase

문 24. (주)세무는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과 관련된 회계처리가 20x1년도의 기타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 20x1년 초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의 잔액은 각각 ₩1,000,000과 ₩600,000이다.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계산에 적용할 할인율은 연 10%이다.
◯ 20x1년도의 당기근무원가 발생액은 ₩240,000이고, 20x1년 말 퇴직한 종업원에게 ₩100,000을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하였다.
◯ 20x1년 말 현금 ₩300,000을 사외적립자산에 출연하였다.
◯ 20x1년 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각각 ₩1,200,000과 ₩850,000이다.

① ₩30,000 감소
② ₩10,000 감소
③ ₩10,000 증가
④ ₩30,000 증가
⑤ ₩40,000 증가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요소를 각각 계산한 뒤 순액이 기타포괄이익을 증가시키는지 감소시키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확정급여채무: 기초 1,000,000원, 할인율 10%, 당기근무원가 240,000원, 급여 지급 100,000원, 실제 기말 현재가치 1,200,000원이다.
사외적립자산: 기초 600,000원, 할인율 10%, 출연액 300,000원, 급여 지급 100,000원, 실제 기말 공정가치 850,000원이다.
당기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을 제외한 수익은 재측정요소로서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재측정 전 예상 기말 확정급여채무 = 기초 확정급여채무 + 이자원가 + 당기근무원가 - 지급액
확정급여채무 재측정이익 = 재측정 전 예상 기말 확정급여채무 - 실제 기말 확정급여채무
재측정 전 예상 기말 사외적립자산 = 기초 사외적립자산 + 이자수익 + 출연액 - 지급액
사외적립자산 재측정손실 = 재측정 전 예상 기말 사외적립자산 - 실제 기말 사외적립자산
기타포괄이익 영향 = 확정급여채무 재측정이익 - 사외적립자산 재측정손실
실제 기말 잔액과 이자 반영 후 예상 잔액의 차이가 재측정요소이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확정급여채무의 이자원가는 1,000,000원의 10%인 100,000원이다. 재측정 전 예상 기말 확정급여채무는 1,000,000원 + 100,000원 + 240,000원 - 100,000원 = 1,240,000원이다. 실제 기말 현재가치는 1,200,000원이므로 채무가 예상보다 40,000원 적다. 따라서 기타포괄이익에 반영되는 보험수리적이익은 40,000원이다.
2.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은 600,000원의 10%인 60,000원이다. 재측정 전 예상 기말 사외적립자산은 600,000원 + 60,000원 + 300,000원 - 100,000원 = 860,000원이다. 실제 기말 공정가치는 850,000원이므로 자산이 예상보다 10,000원 적다. 따라서 기타포괄손실은 10,000원이다.
3. 순효과는 40,000원 이익 - 10,000원 손실 = 30,000원 이익이므로 기타포괄이익이 30,000원 증가한다.

선지 판단

① X. '30,000원 감소'는 순효과의 방향을 반대로 판단한 것이다. 올바르게는 30,000원 증가이다.
② X. '10,000원 감소'는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손실만 반영하고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이익 40,000원을 누락한 값이다. 올바르게는 순액 30,000원 증가이다.
③ X. '10,000원 증가'는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의 두 재측정요소를 올바르게 합산한 값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40,000원 이익에서 10,000원 손실을 차감한 30,000원 증가이다.
④ O.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이익 40,000원과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손실 10,000원을 합하면 기타포괄이익이 30,000원 증가한다.
⑤ X. '40,000원 증가'는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이익만 반영하고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손실 10,000원을 누락한 값이다. 올바르게는 순액 30,000원 증가이다.

오답 포인트

당기근무원가와 이자원가·이자수익은 당기손익 요소이고, 예상 잔액과 실제 기말 잔액의 차이만 재측정요소이다. 또한 채무가 예상보다 작으면 이익이고 자산이 예상보다 작으면 손실이므로 두 차이의 부호를 반대로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채무와 사외적립자산에 각각 기초 잔액의 이자를 반영하여 재측정 전 기말 잔액을 계산하고, 실제 기말 잔액과 비교한 뒤 두 재측정손익을 순액으로 합산한다.

암기 포인트

채무가 예상보다 작으면 기타포괄이익, 사외적립자산이 예상보다 작으면 기타포괄손실이다.

NoteBase

문 25. (주)세무의 20x1년 1월의 재고자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1년 1월 중 직접재료의 매입액은 ₩960,000이고, 직접노무원가는 제조간접원가의 40%이다. 1월의 매출액은 ₩2,500,000이며, 매출총이익률은 16%이다. 20x1년 1월의 기본원가(prime costs)는?

	직접재료	재공품	제 품
20×1. 1. 1.	₩80,000	₩100,000	₩125,000
20×1. 1. 31.	60,000	75,000	80,000

① ₩1,050,000

② ₩1,160,000

③ ₩1,280,000

④ ₩1,380,000

⑤ ₩1,430,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매출총이익률에서 매출원가를 역산한 뒤 제품·재공품·직접재료의 원가 흐름을 차례로 연결하여 기본원가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매출액: ₩2,500,000
매출총이익률: 16%
직접재료 매입액: ₩960,000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의 40%
기초·기말 재고: 직접재료 ₩80,000·₩60,000, 재공품 ₩100,000·₩75,000, 제품 ₩125,000·₩80,000
구해야 할 값: 기본원가 = 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

사용할 공식

매출원가=매출액×(1-매출총이익률)
당기제품제조원가=매출원가-기초제품+기말제품
당기총제조원가=당기제품제조원가-기초재공품+기말재공품
직접재료원가=기초직접재료+매입액-기말직접재료
기본원가=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은 기초재고와 당기 투입액을 더하고 기말재고를 빼는 구조이므로 위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매출원가는 ₩2,500,000 × (1 - 0.16) = ₩2,100,000이다.
2. 당기제품제조원가는 ₩2,100,000 - ₩125,000 + ₩80,000 = ₩2,055,000이다.
3. 당기총제조원가는 ₩2,055,000 - ₩100,000 + ₩75,000 = ₩2,030,000이다.
4. 직접재료원가는 ₩80,000 + ₩960,000 - ₩60,000 = ₩980,000이다.
5. 직접노무원가를 L, 제조간접원가를 O라 하면 $L = 0.4O$이다. 두 원가의 합은 ₩2,030,000 - ₩980,000 = ₩1,050,000이므로 $1.4O = 1{,}050{,}000$이다. 따라서 제조간접원가는 ₩750,000이고 직접노무원가는 ₩300,000이다.
6. 기본원가는 ₩980,000 + ₩300,000 = ₩1,280,000이다.

선지 판단

① X — ₩1,050,000은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의 합인 가공원가이다. 기본원가는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의 합인 ₩1,280,000이다.
② X — ₩1,160,000은 계산된 기본원가와 일치하지 않는다. ₩1,160,000이 아니라 ₩980,000 + ₩300,000 = ₩1,280,000이다.
③ O — 직접재료원가 ₩980,000과 직접노무원가 ₩300,000을 합하면 기본원가는 ₩1,280,000이다.
④ X — ₩1,380,000은 계산된 기본원가와 일치하지 않는다. ₩1,380,000이 아니라 ₩1,280,000이다.
⑤ X — ₩1,430,000은 계산된 기본원가와 일치하지 않는다. ₩1,430,000이 아니라 ₩1,280,000이다.

오답 포인트

직접노무원가가 제조간접원가의 40%라는 조건을 두 원가의 합이 40%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또한 ①의 ₩1,050,000은 기본원가가 아니라 가공원가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매출총이익률로 매출원가를 구한 뒤 제품재고, 재공품재고, 직접재료재고의 순서로 역산한다. 마지막에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의 비율을 풀고, 기본원가에는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만 포함한다.

암기 포인트

기본원가 = 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 가공원가 = 직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이다.

NoteBase

문 26. (주)세무는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의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전환원가(conversion costs)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당기 제조활동과 관련하여 가중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해 각각 계산한 직접재료원가와 전환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다음과 같다. 기초재공품의 전환원가 완성도는?

	직접재료원가 완성품환산량	전환원가 완성품환산량
가중평균법	3,000단위	2,400단위
선입선출법	2,000단위	1,800단위

① 20%

② 30%

③ 40%

④ 50%

⑤ 60%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가중평균법의 완성품환산량과 선입선출법의 완성품환산량의 차이를 이용해 기초재공품의 전환원가 완성도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직접재료원가 완성품환산량은 가중평균법 3,000단위, 선입선출법 2,000단위이고, 전환원가 완성품환산량은 각각 2,400단위와 1,800단위이다.
구해야 할 값: 기초재공품의 전환원가 완성도이다.
주의할 조건: 직접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므로 기초재공품의 직접재료 완성도는 100%이다.

사용할 공식

가중평균법 환산량과 선입선출법 환산량의 차이는 기초재공품에 전기까지 투입된 작업의 환산량이다.
기초재공품 전환원가 완성도=전환원가 환산량 차이기초재공품 수량× 100\%
직접재료가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므로 직접재료 환산량의 차이로 기초재공품 수량을 구할 수 있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직접재료 환산량의 차이는 3,000단위 - 2,000단위 = 1,000단위이다. 이는 기초재공품에 이미 전량 투입된 직접재료의 환산량이므로 기초재공품 수량은 1,000단위이다.
2. 전환원가 환산량의 차이는 2,400단위 - 1,800단위 = 600단위이다. 이는 기초재공품에 전기까지 투입된 전환원가의 환산량이다.
3. 따라서 전환원가 완성도는 600 ÷ 1,000 × 100% = 60%이다.

선지 판단

① X — 20%는 계산 결과 60%와 다르다. 틀린 값 20%를 올바르게 고치면 60%이다.
② X — 30%는 전환원가 환산량 차이 600단위를 기초재공품 1,000단위로 나눈 값이 아니다. 틀린 값 30%를 올바르게 고치면 60%이다.
③ X — 40%는 기초재공품의 미완성 비율이다. 문제에서 요구한 전환원가 완성도는 60%이므로 40%를 60%로 고쳐야 한다.
④ X — 50%는 계산 결과와 다르다. 전환원가 환산량 차이 600단위를 기초재공품 1,000단위로 나누면 60%이므로 50%를 60%로 고쳐야 한다.
⑤ O — 600 ÷ 1,000 × 100% = 60%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전환원가의 미완성 비율 40%를 완성도로 착각하거나, 두 원가요소의 환산량 차이를 서로 대응시키지 않는 것이 함정이다. 직접재료 환산량 차이로 기초재공품 수량을 먼저 구한 뒤 전환원가 환산량 차이를 그 수량으로 나누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중평균법 환산량에서 선입선출법 환산량을 빼면 기초재공품에 전기까지 투입된 작업량이 된다.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는 원가요소의 차이로 기초재공품 수량을 구하고, 구하려는 원가요소의 차이를 그 수량으로 나누어 완성도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가중평균법 환산량 - 선입선출법 환산량 = 기초재공품의 전기 작업 환산량이다.

NoteBase

문 27. (주)세무는 제조부문인 절단부문과 조립부문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동력부문을 보조부문으로 두고 있다. 각 부문에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 및 각 제조부문의 전력 실제사용량과 최대사용가능량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절단부문에 배부되는 동력부문의 원가는 이중배분율법을 적용하는 경우, 단일배분율법과 비교하여 얼마만큼 차이가 발생하는가?

	동력부문	절단부문	조립부문	합계
변동제조간접원가	₩240,000	₩400,000	₩650,000	₩1,290,000
고정제조간접원가	300,000	700,000	750,000	1,750,000
실제사용량	-	500kW	300kW	800kW
최대사용가능량	-	600kW	600kW	1,200kW

① ₩30,000

② ₩32,500

③ ₩35,000

④ ₩37,500

⑤ ₩40,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단일배분율법과 이중배분율법으로 절단부문에 배부되는 동력부문 원가를 각각 계산한 뒤 그 차이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동력부문 변동제조간접원가는 240,000원이고 고정제조간접원가는 300,000원이다. 실제사용량은 절단부문 500kW, 조립부문 300kW로 합계 800kW이다. 최대사용가능량은 두 제조부문이 각각 600kW로 합계 1, 200kW이다.

사용할 공식

단일배분율법은 동력부문의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합친 뒤 실제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나의 배분율을 적용한다.
단일배분율=240,000+300,000800
이중배분율법은 변동원가는 실제사용량, 고정원가는 최대사용가능량을 기준으로 각각 배부한다.
변동원가 배분율=240,000800, 고정원가 배분율=300,0001,200

NoteBase

계산 과정

단일배분율은 675원이므로 절단부문 배부액은 675 × 500 = 337,500원이다.
이중배분율법에서 절단부문의 변동원가 배부액은 300 × 500 = 150,000원이고, 고정원가 배부액은 250 × 600 = 150,000원이다. 따라서 이중배분율법의 배부액은 300,000원이다.
두 방법의 차이는 337,500 − 300,000 = 37,500원이다. 즉 이중배분율법의 배부액이 단일배분율법보다 37,500원 적다.

선지 판단

① X — 30,000원은 두 방법의 배부액 차이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차이는 37,500원이다.
② X — 32,500원은 단일배분액 337,500원과 이중배분액 300,000원의 차이가 아니다. 올바른 차이는 37,500원이다.
③ X — 35,000원은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차이는 37,500원이다.
④ O — 337,500 − 300,000 = 37,500원이므로 정확하다.
⑤ X — 40,000원은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차이는 37,5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이중배분율법에서 변동원가와 고정원가에 같은 조업도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된다. 변동원가는 실제사용량, 고정원가는 최대사용가능량을 기준으로 하며, 절단부문의 고정원가 배부에는 실제사용량 500kW가 아니라 최대사용가능량 600kW를 사용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단일배분율법의 배부액과 이중배분율법의 변동·고정 배부액을 각각 구한 뒤 두 총액의 차이를 계산한다.
이중배분율법에서는 변동원가의 실제사용량 기준과 고정원가의 최대사용가능량 기준을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이중배분율법은 변동원가에는 실제사용량, 고정원가에는 최대사용가능량을 적용한다.

NoteBase

문 28. 활동기준원가계산(ABC)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조기술이 발달되고 공장이 자동화되면서 증가되는 제조간접원가를 정확하게 제품에 배부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원가계산기법이다.

② 설비유지원가(facility sustaining cost)는 원가동인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자의적인 배부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③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비부가가치활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원가를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통제할 수 있다.

④ 원가를 소비하는 활동보다 원가의 발생행태에 초점을 맞추어 원가를 집계하여 배부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원가계산보다 정확한 제품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⑤ 고객별·제품별로 공정에서 요구되는 활동의 필요량이 매우 상이한 경우에 적용하면 큰 효익을 얻을 수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활동기준원가계산(ABC)이 자원원가를 활동에 집계하고, 제품·서비스 등 원가대상이 소비한 활동량에 따라 그 원가를 배부한다는 기본 구조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활동기준원가계산은 자원이 활동에 의해 소비되고 활동이 제품·서비스 등 원가대상에 의해 소비된다는 관점에서 간접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이다. 전통적 원가계산이 조업도 중심의 소수 배부기준을 주로 사용하는 것과 달리, ABC는 활동과 원가동인을 세분하여 간접원가의 인과관계를 더 정교하게 반영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자동화로 직접노무의 비중은 줄고 제조간접원가의 비중과 복잡성이 커지면, 활동과 원가동인을 이용하는 ABC가 간접원가를 더 정확히 배부하고 관리하는 데 유용하다.
② O — 설비유지원가는 공장 전체의 생산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수준원가이다. 개별 제품이나 활동과의 인과관계가 뚜렷한 원가동인을 찾기 어려워 자의적인 배부기준이 사용될 수 있다.
③ O — 활동을 부가가치활동과 비부가가치활동으로 분석하면 불필요한 활동을 제거하거나 줄일 수 있으므로 원가 절감과 통제에 활용할 수 있다.
④ X — 틀린 표현은 '원가를 소비하는 활동보다 원가의 발생행태에 초점을 맞추어'이다. ABC는 원가의 발생행태보다 자원을 소비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며, 자원원가를 활동에 집계한 뒤 활동원가를 원가대상에 배부한다.
⑤ O — 고객별·제품별로 요구하는 활동의 종류와 양이 크게 다르면 단순한 조업도 기준으로는 원가가 왜곡되기 쉽다. 이때 활동별 원가동인을 사용하는 ABC의 효익이 커진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의 '원가의 발생행태'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처럼 조업도 변화에 따른 원가의 반응을 뜻한다. ABC의 핵심은 이러한 원가행태의 분류가 아니라 자원－활동－원가대상의 소비 관계를 추적하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BC 선지는 '자원이 활동에 소비되고 활동이 원가대상에 소비된다'는 흐름에 맞는지 확인한다. 활동과 원가동인의 인과관계를 강조하면 옳고, 원가행태 자체가 집계·배부의 중심이라고 하면 틀리다.

암기 포인트

ABC의 중심은 원가행태가 아니라 활동이다. 자원 → 활동 → 원가대상의 순서로 추적한다.

NoteBase

문 29. (주)세무는 원유를 투입하여 결합제품 A를 1,000단위, B를 1,500단위 생산하였다. 분리점 이전에 발생한 직접재료원가는 ₩1,690,000, 직접노무원가는 ₩390,000, 제조간접원가는 ₩520,000이다. 제품 A와 B는 분리점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추가가공한 후에 판매하였는데, 제품 A는 추가가공원가 ₩850,000과 판매비 ₩125,000이 발생하며, 제품 B는 추가가공원가 ₩1,100,000과 판매비 ₩200,000이 발생하였다. 추가가공 후 최종 판매가치는 제품 A가 단위당 ₩2,000이며, 제품 B는 단위당 ₩3,000이다. 균등매출총이익률법에 따라 결합원가를 각 제품에 배부할 때, 제품 A에 배부되는 결합원가는?

① ₩525,000

② ₩550,000

③ ₩554,000

④ ₩600,000

⑤ ₩604,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균등매출총이익률법으로 전체 매출총이익률을 구한 뒤, 제품 A의 목표 매출원가에서 추가가공원가를 차감하여 제품 A의 결합원가 배부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결합원가 합계: 1,690,000원 + 390,000원 + 520,000원 = 2,600,000원
제품 A의 최종 판매가치: 1,000단위 × 2,000원 = 2,000,000원
제품 B의 최종 판매가치: 1,500단위 × 3,000원 = 4,500,000원
추가가공원가 합계: 850,000원 + 1,100,000원 = 1,950,000원
판매비는 매출총이익을 계산하는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결합원가 배부 계산에서 제외한다.

사용할 공식

전체 매출총이익률=총매출액-(결합원가+추가가공원가)총매출액
제품 A 배부 결합원가=제품 A 매출액×(1-전체 매출총이익률)-제품 A 추가가공원가
균등매출총이익률법은 각 결합제품의 매출총이익률이 같아지도록 결합원가를 역산하여 배부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총매출액은 2,000,000원 + 4,500,000원 = 6,500,000원이다.
2. 전체 매출총이익은 6,500,000원 - 2,600,000원 - 1,950,000원 = 1,950,000원이다.
3. 전체 매출총이익률은 $1,950,000/6,500,000 = 30\%$이다.
4. 제품 A의 목표 매출원가는 $2,000,000 \times (1 - 0.30) = 1,400,000$원이다.
5. 제품 A의 결합원가 배부액은 1,400,000원 - 850,000원 = 550,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525,000원은 제품 A의 배부 결합원가가 아니다. 판매비를 매출총이익 계산에 포함하면 생기는 값이며, 판매비를 제외하면 550,000원이다.
② O — 계산된 제품 A의 결합원가 배부액 550,000원과 일치한다.
③ X — 554,000원은 균등매출총이익률법으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금액은 550,000원이다.
④ X — 600,000원은 제품 A의 목표 매출원가 1,400,000원에서 추가가공원가 850,000원을 차감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금액은 550,000원이다.
⑤ X — 604,000원은 균등매출총이익률법으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금액은 55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판매비 125,000원과 200,000원을 제조원가처럼 포함하면 ①의 525,000원이 나온다.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판매비는 제외하고, 추가가공원가만 제품별 목표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총매출액과 총제조원가로 공통 매출총이익률을 계산하고, 각 제품에 대해 '매출액 × (1 - 공통 매출총이익률) - 추가가공원가'의 순서로 결합원가를 역산한다. 판매비는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균등매출총이익률법은 공통 이익률을 먼저 구한 뒤 제품별 결합원가를 역산하며, 판매비는 매출총이익 계산에서 제외한다.

NoteBase

문 30. (주)세무는 20x1년에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20x2년의 제품 단위당 표준원가는 20x1년과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직접재료는 공정의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전환원가(conversion costs)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주)세무의 20x2년 기초재공품은 1,000단위(완성도 40%), 당기 완성량은 5,500단위이며, 기말재공품은 700단위(완성도 60%)이다. 표준종합원가계산 하에서 완성품원가와 기말재공품원가는? (단, 원가흐름은 선입선출법을 가정하고, 공손 및 감손은 없다.)

직 접 재 료 원 가	4kg × ₩6 =	₩24
직 접 노 무 원 가	2시간 × ₩4 =	8
변 동 제 조 간 접 원 가	2시간 × ₩4 =	8
고 정 제 조 간 접 원 가	2시간 × ₩5 =	10
		₩50

① 완성품원가: ₩225,000 / 기말재공품원가: ₩21,000

② 완성품원가: ₩240,600 / 기말재공품원가: ₩27,720

③ 완성품원가: ₩240,600 / 기말재공품원가: ₩28,420

④ 완성품원가: ₩275,000 / 기말재공품원가: ₩21,000

⑤ 완성품원가: ₩275,000 / 기말재공품원가: ₩27,720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선입선출법에 따라 기초재공품의 완성 원가, 당기 착수·완성품의 원가, 기말재공품의 재료원가와 전환원가를 각각 표준원가로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제품 단위당 표준원가는 직접재료원가 24원과 전환원가 26원(직접노무원가 8원＋변동제조간접원가 8원＋고정제조간접원가 10원)을 합한 50원이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므로 기초재공품과 기말재공품의 재료 완성도는 모두 100%이다.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므로 기초재공품의 당기 추가 완성도는 60%, 기말재공품의 완성도는 60%이다.
당기 착수·완성량은 5,500단위－1,000단위＝4,500단위이다. 20x1년과 20x2년의 표준원가가 같다는 조건도 함께 적용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기초재공품 완성 원가 = 기초재공품의 전기 원가＋기초재공품의 당기 완성 원가
완성품원가 = 기초재공품 완성 원가＋당기 착수·완성품 원가
기말재공품원가 = 재료원가＋전환원가

선입선출법은 기초재공품을 먼저 완성한 뒤 당기 착수분을 완성한 것으로 보므로 기초재공품의 미완성 전환원가를 별도로 계산한다.

계산 과정

1. 기초재공품의 전기 원가는 $1,000 \times [24 + 26 \times 0.4] = 34,400$원이다.
2. 기초재공품의 당기 완성 원가는 $1,000 \times 26 \times 0.6 = 15,600$원이므로, 기초재공품 1,000단위의 완성원가는 50,000원이다.
3. 당기 착수·완성품 원가는 $4,500 \times 50 = 225,000$원이다. 따라서 완성품원가는 50,000원＋225,000원＝275,000원이다.
4. 기말재공품의 재료원가는 $700 \times 24 = 16,800$원이고, 전환원가는 $700 \times 0.6 \times 26 = 10,920$원이다. 따라서 기말재공품원가는 16,800원＋10,920원＝27,72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완성품원가 225,000원은 당기 착수·완성품 4,500단위의 원가만 계산하여 기초재공품 완성 원가 50,000원을 누락한 값이다. 기말재공품원가 21,000원은 전체 단위당 원가 50원에 완성도 60%를 일괄 적용하여,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는 직접재료까지 60%만 반영한 값이다. 올바르게는 완성품원가 275,000원, 기말재공품원가 27,720원이다.
② X — 완성품원가 240,600원은 당기 착수·완성품 원가 225,000원에 기초재공품의 당기 추가 전환원가 15,600원만 더하고, 기초재공품의 전기 원가 34,400원을 누락한 값이다. 기말재공품원가 27,720원은 맞지만, 올바른 완성품원가는 275,000원이다.
③ X — 완성품원가 240,600원은 기초재공품의 전기 원가를 누락한 값이며, 기말재공품원가 28,420원도 재료원가 16,800원과 전환원가 10,920원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완성품원가 275,000원, 기말재공품원가 27,720원이다.
④ X — 완성품원가 275,000원은 맞지만, 기말재공품원가 21,000원은 직접재료에도 전환원가 완성도 60%를 적용한 값이다. 직접재료는 100%, 전환원가만 60%를 적용하므로 올바른 기말재공품원가는 27,720원이다.
⑤ O — 완성품원가는 275,000원이고 기말재공품원가는 27,720원이므로 두 금액이 모두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기초재공품의 전기 원가를 완성품원가에서 빠뜨리는 것과, 기말재공품의 완성도 60%를 직접재료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선입선출법에서는 기초재공품의 전기 원가와 당기 추가 원가를 모두 완성품으로 넘기며,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된 직접재료에는 기말 완성도를 곱하지 않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재료원가와 전환원가를 분리하고, 선입선출법에 따라 기초재공품의 잔여 작업과 당기 착수·완성량을 구분한다. 그다음 완성품에는 기초재공품의 전기 원가까지 포함하고, 기말재공품에는 원가요소별 완성도를 각각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는 재료는 기말재공품에도 100%, 균등 발생하는 전환원가는 기말 완성도만큼 반영한다.

NoteBase

문 31. (주)세무는 20x1년에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정상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다음은 (주)세무의 20x1년 배부차이를 조정하기 전의 제조간접원가 계정과 기말재공품, 기말제품 및 매출원가에 관한 자료이다. 제조간접원가의 배부차이를 매출원가조정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총원가비례배분법에 비해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증가(혹은 감소)하는가?

제조간접원가	
630,000	?

	기말재공품	기말제품	매출원가
직접재료원가	₩225,000	₩250,000	₩440,000
직접노무원가	125,000	150,000	210,000
제조간접원가	150,000	200,000	250,000
합 계	₩500,000	₩600,000	₩900,000

① ₩16,500 감소

② ₩13,500 감소

③ ₩13,500 증가

④ ₩16,500 증가

⑤ ₩30,000 증가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실제 제조간접원가와 배부 제조간접원가의 차이를 구한 뒤, 과소배부액을 매출원가조정법과 총원가비례배분법으로 처리할 때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차이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배부 제조간접원가: 기말재공품 150,000원 + 기말제품 200,000원 + 매출원가 250,000원 = 600,000원

실제 제조간접원가: 630,000원

배부차이: 30,000원 과소배부

총원가비례배분의 기준 총액: 500,000원 + 600,000원 + 900,000원 = 2,000,000원

NoteBase

사용할 공식

과소배부액=실제 제조간접원가-배부 제조간접원가
총원가비례배분액=과소배부액×각 계정의 총원가세 계정의 총원가 합계
과소배부는 실제 발생액이 제품에 배부된 금액보다 크다는 뜻이다. 매출원가조정법은 과소배부액 전부를 매출원가에 더하지만, 총원가비례배분법은 기말재공품·기말제품·매출원가에 나누어 더하므로 두 방법의 매출원가 증가액이 다르다.

계산 과정

1. 배부 제조간접원가는 150,000원 + 200,000원 + 250,000원 = 600,000원이다.
2. 실제 제조간접원가가 630,000원이므로 630,000원 - 600,000원 = 30,000원이 과소배부되었다.
3. 매출원가조정법에서는 30,000원 전액을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4. 총원가비례배분법에서 매출원가 배분비율은 900,000/2,000,000 = 45%이므로 매출원가에 가산되는 금액은 30,000×45\%=13,500원이다. 나머지 16,500원은 기말재공품 7,500원과 기말제품 9,000원에 배분된다.
5. 매출원가조정법의 매출원가는 총원가비례배분법보다 30,000원 - 13,500원 = 16,500원 더 크다. 따라서 매출원가조정법의 당기순이익은 16,500원 감소한다.

선지 판단

① O — 두 방법의 매출원가 차이가 16,500원이므로 매출원가조정법의 당기순이익은 총원가비례배분법보다 16,500원 감소한다.
② X — 13,500원은 총원가비례배분법에서 매출원가에 배분되는 과소배부액일 뿐 두 방법의 차이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16,500원 감소이다.
③ X — 13,500원은 비교 차액도 아니고 증가 방향도 틀렸다. 올바르게는 16,500원 감소이다.
④ X — 금액 16,500원은 맞지만 방향이 반대이다. 매출원가조정법이 비용을 더 많이 인식하므로 올바르게는 16,500원 감소이다.
⑤ X — 30,000원은 과소배부액 전액이며 두 방법의 당기순이익 차이가 아니다. 또한 매출원가조정법에서는 순이익이 증가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16,500원 감소이다.

오답 포인트

총원가비례배분법이 매출원가에 배분한 13,500원을 곧바로 두 방법의 차이로 보는 것이 함정이다. 비교할 금액은 매출원가조정법의 30,000원과 총원가비례배분법의 13,500원의 차이인 16,500원이다. 과소배부액을 매출원가에 더 많이 반영할수록 비용은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은 감소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실제액과 배부액의 차이로 과소·과대배부를 판정한다. 다음으로 각 방법이 매출원가에 반영하는 금액만 비교하고, 매출원가 증가와 당기순이익 증감의 방향이 반대임을 적용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과소배부 전액을 매출원가에 넣으면 재고에도 나누는 총원가비례배분법보다 당기 비용이 커지고 당기순이익은 작아진다.

문 32. (주)세무는 제품 A와 B를 생산하고 있으며, 제품 생산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월간 이용가능한 기계시간은 1,000시간, 노무시간은 2,40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월간 고정원가는 ₩20,000으로 매월 동일하고, 제품 A와 B의 시장수요는 무한하다. (주)세무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품 A와 B를 각각 몇 단위 생산해야 하는가?

구분	제품A	제품B
제품 단위당 공헌이익	₩30	₩50
제품 단위당 기계시간	0.5시간	1시간
제품 단위당 노무시간	1.5시간	2시간

① 제품A: 0단위 / 제품B: 1,000단위

② 제품A: 800단위 / 제품B: 500단위

③ 제품A: 800단위 / 제품B: 600단위

④ 제품A: 900단위 / 제품B: 500단위

⑤ 제품A: 1,600단위 / 제품B: 0단위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복수의 제약자원이 있는 제품배합 의사결정에서 선형계획법의 제약식과 목적함수를 세우고, 실행가능영역의 꼭짓점별 공헌이익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제품 A의 생산량을 x, 제품 B의 생산량을 y라 한다.

기계시간 제약: $0.5x + y \le 1{,}000$

노무시간 제약: $1.5x + 2y \le 2{,}400$

비음조건: $x \ge 0,\ y \ge 0$

총공헌이익: $30x + 50y$

월간 고정원가 20,000원은 어느 제품배합에서도 동일하므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생산량 조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목적함수는 다음과 같다.
$\max Z = 30x + 50y$
제약식이 둘인 선형계획문제에서는 실행가능영역의 꼭짓점에서 목적함수 값을 비교한다. 공헌이익이 양수이고 시장수요가 무한하므로 두 자원이 모두 소진되는 교점도 후보가 된다.

계산 과정

두 제약식의 경계가 만나는 점을 구한다.
$0.5x + y = 1{,}000$
$1.5x + 2y = 2{,}400$
첫째 식에 2를 곱하면 $x + 2y = 2{,}000$이다. 둘째 식에서 이를 빼면 $0.5x = 400$이므로 $x = 800$, $y = 600$이다.
실행가능영역의 주요 꼭짓점별 총공헌이익은 (0, 0)에서 0원, (0, 1,000)에서 50,000원, (800, 600)에서 54,000원, (1,600, 0)에서 48,000원이다. 따라서 최대 총공헌이익은 제품 A 800단위와 제품 B 600단위를 생산할 때의 54,000원이다. 고정원가를 차감한 최대이익은 34,000원이지만 최적 생산량은 변하지 않는다.

선지 판단

① X — 제품 A 0단위와 제품 B 1,000단위는 실행 가능하지만 총공헌이익이 50,000원으로 54,000원보다 작다. 틀린 조합 '제품 A 0단위 / 제품 B 1,000단위'는 '제품 A 800단위 / 제품 B 600단위'로 고쳐야 한다.
② X — 제품 A 800단위와 제품 B 500단위는 기계시간 900시간, 노무시간 2,200시간만 사용하고 총공헌이익도 49,000원에 그친다. 틀린 조합 '제품 A 800단위 / 제품 B 500단위'는 '제품 A 800단위 / 제품 B 600단위'로 고쳐야 한다.
③ O — 제품 A 800단위와 제품 B 600단위는 기계시간 1,000시간과 노무시간 2,400시간을 모두 사용하며, 실행가능 꼭짓점 중 총공헌이익 54,000원으로 가장 크다.
④ X — 제품 A 900단위와 제품 B 500단위는 기계시간 950시간, 노무시간 2,350시간을 사용하고 총공헌이익이 52,000원이므로 최적이 아니다. 틀린 조합 '제품 A 900단위 / 제품 B 500단위'는 '제품 A 800단위 / 제품 B 600단위'로 고쳐야 한다.
⑤ X — 제품 A 1,600단위와 제품 B 0단위는 노무시간을 모두 사용하지만 총공헌이익이 48,000원으로 더 작다. 틀린 조합 '제품 A 1,600단위 / 제품 B 0단위'는 '제품 A 800단위 / 제품 B 600단위'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제품별 공헌이익만 비교하거나 제약자원 하나만 기준으로 생산량을 정하면 ① 또는 ⑤처럼 축 위의 조합을 고르기 쉽다. 또한 ④는 두 자원이 거의 소진되어 그럴듯하지만, 남은 자원을 활용해 총공헌이익을 더 높일 수 있다. 고정원가는 모든 조합에서 같으므로 제품배합을 결정할 때 목적함수에서 제외해도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품별 생산량을 변수로 두고 자원별 제약식을 세운 다음, 축과의 교점 및 제약식끼리의 교점에서 총공헌이익을 계산해 가장 큰 실행가능 조합을 선택한다. 공통 고정원가는 최적 조합이 정해진 뒤 전체 이익을 구할 때 차감한다.

암기 포인트

복수 제약의 최적 제품배합은 '실행가능 꼭짓점별 총공헌이익 비교'이며, 공통 고정원가는 제품배합을 바꾸지 않는다.

NoteBase

문 33. (주)세무는 단일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은 ₩7,500으로 매년 일정하게 유지되고, 모든 제품은 생산된 연도에 전량 판매된다. 최근 2년간 생산량과 총제조원가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2년 1월 1일에 인력조정 및 설비투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원가구조가 달라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단, 20x2년 초의 인력조정 및 설비투자 이외에 원가행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없으며, 고저점법으로 원가함수를 추정한다.)

기간		생산량	총제조원가
20×1년	상반기	200단위	₩1,200,000
	하반기	300	1,650,000
20×2년	상반기	350	1,725,000
	하반기	400	1,900,000

① 20x2년의 영업레버리지도는 2.5이다.

② 20x2년의 안전한계율은 약 33%이다.

③ 20x1년에 비해 20x2년의 영업레버리지도는 증가하였다.

④ 20x1년에 비해 20x2년에 연간 총고정제조원가는 ₩200,000 증가하였다.

⑤ 20x1년에 비해 20x2년의 연간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50단위 증가하였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원가구조가 바뀐 시점을 기준으로 연도별 고저점법을 적용하여 단위당 변동제조원가와 연간 고정제조원가를 추정한 뒤, 영업레버리지도·안전한계율·손익분기점 판매량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판매가격은 단위당 7,500원이다. 20x2년 초에 원가구조가 달라졌으므로 20x1년 자료와 20x2년 자료를 섞지 않고 각 연도의 상·하반기 자료에 고저점법을 따로 적용한다. 표의 원가는 반기 총제조원가이므로 고저점법으로 구한 고정제조원가도 반기 금액이며, 연간 분석에서는 이를 2배로 환산한다. 모든 제품이 생산된 연도에 전량 판매되므로 연간 생산량은 연간 판매량과 같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고점과 저점의 총원가를 각각 C_H, C_L, 조업도를 각각 Q_H, Q_L라 하면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v = \frac{C_H - C_L}{Q_H - Q_L}$이다. 반기 고정제조원가는 $F_h = C - vQ$, 단위당 공헌이익은 $CM_u = P - v$이다. 영업레버리지도는 $DOL = \frac{CM}{OI}$, 안전한계율은 $\frac{Q - Q_{BE}}{Q}$,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Q_{BE} = \frac{F}{CM_u}$이다. 고저점법은 조업도 변화에 따른 총원가 차이로 변동원가율을 구하고, 나머지를 고정원가로 분리하는 방법이므로 이 자료에 적용한다.

계산 과정

1. 20x1년: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frac{1,650,000 - 1,200,000}{300 - 200} = 4,500$원이다. 반기 고정제조원가는 $1,200,000 - 4,500 \times 200 = 300,000$원이므로 연간 고정제조원가는 600,000원이다. 단위당 공헌이익은 $7,500 - 4,500 = 3,000$원이고, 연간 판매량은 $200 + 300 = 500$단위이다. 따라서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600,000 \div 3,000 = 200$단위, 총공헌이익은 1,500,000원, 영업이익은 900,000원, 영업레버리지도는 $1,500,000 \div 900,000 \approx 1.67$이다.
2. 20x2년: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frac{1,900,000 - 1,725,000}{400 - 350} = 3,500$원이다. 반기 고정제조원가는 $1,725,000 - 3,500 \times 350 = 500,000$원이므로 연간 고정제조원가는 1,000,000원이다. 단위당 공헌이익은 $7,500 - 3,500 = 4,000$원이고, 연간 판매량은 $350 + 400 = 750$단위이다. 따라서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1,000,000 \div 4,000 = 250$단위, 총공헌이익은 3,000,000원, 영업이익은 2,000,000원, 영업레버리지도는 $3,000,000 \div 2,000,000 = 1.5$, 안전한계율은 $\frac{750 - 250}{750} \approx 66.7\%$이다.

선지 판단

① X — 20x2년의 영업레버리지도는 2.5가 아니라 $3,000,000 \div 2,000,000 = 1.5$이다. 틀린 표현 '2.5'는 '1.5'로 고쳐야 한다.
② X — 20x2년의 안전한계율은 약 33%가 아니라 $\frac{750 - 250}{750} \approx 66.7\%$이다. 약 33.3%는 손익분기점 판매량 250단위를 실제 판매량 750단위로 나눈 비율이다.
③ X — 영업레버리지도는 20x1년 약 1.67에서 20x2년 1.5로 감소하였다. 틀린 표현 '증가하였다'는 '감소하였다'로 고쳐야 한다.
④ X — 연간 총고정제조원가는 20x1년 600,000원에서 20x2년 1,000,000원으로 400,000원 증가하였다. 틀린 금액 '200,000원'은 '40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⑤ O — 연간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20x1년 200단위에서 20x2년 250단위로 정확히 50단위 증가하였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반기 자료에서 구한 고정제조원가를 그대로 연간 고정제조원가로 사용하는 것이다. 반기 고정제조원가를 2배 해야 하며, ②의 약 33%는 안전한계율이 아니라 손익분기점 판매량 비율이다. 또한 원가구조가 20x2년 초에 변했으므로 두 연도의 관측치를 한 원가함수에 함께 넣으면 안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원가구조 변경 전후의 자료를 먼저 분리하고, 각 기간에 대해 '고저점법으로 변동원가 추정 → 고정원가 산출 → 자료 기간과 분석 기간의 단위 통일 → 공헌이익·손익분기점·영업레버리지 계산' 순서로 판단한다.
안전한계율의 분자는 실제판매량에서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뺀 값이다.

암기 포인트

고저점법은 변동원가부터 구하고 고정원가를 역산한다. 반기 고정원가는 연간 계산에서 2배이며,
DOL=총공헌이익÷영업이익, 안전한계율 =(실제량-BEP량)÷실제량이다.

NoteBase

문 34. (주)세무는 A부품을 매년 1,000단위씩 자가제조하여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다. A부품을 연간 1,000단위 생산할 경우 단위당 원가는 다음과 같다. 최근에 외부의 공급업자로부터 A부품 1,000단위를 단위당 ₩35에 납품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부품을 전량 외부에서 구입하면 연간 총고정제조간접원가 중 ₩400이 절감되며, A부품 생산에 사용하던 설비를 다른 부품생산에 활용함으로써 연간 ₩200의 공헌이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주)세무가 외부 공급업자의 제안을 수락하면, A부품을 자가제조할 때보다 연간 영업이익은 얼마나 증가(혹은 감소)하는가?

구분	단위당 원가
변동제조원가	₩33
고정제조간접원가	5
합계	₩38

① ₩1,400 감소

② ₩1,400 증가

③ ₩3,600 감소

④ ₩3,600 증가

⑤ ₩4,800 감소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자가제조와 외부구입의 관련원가를 비교하여 외부구입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자가제조 수량: 연간 1,000단위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33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5
외부구입가격: 단위당 ₩35
외부구입 시 절감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 연간 ₩400
유휴설비의 대체 사용으로 얻는 추가 공헌이익: 연간 ₩200
주의할 조건: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5 전액이 아니라 실제로 회피되는 연간 ₩400만 관련원가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외부구입에 따른 영업이익 증감=회피가능 변동원가+회피가능 고정원가+기회원가 절감-구입원가
자가제조를 중단하면 변동제조원가와 회피가능 고정원가를 절감하고 다른 부품생산의 공헌이익을 얻지만, 외부구입원가가 발생하므로 이 증감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회피되는 변동제조원가는 ₩33 × 1,000단위 = ₩33,000이다.
2. 회피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 ₩400과 추가 공헌이익 ₩200을 더하면 외부구입의 총효익은 ₩33,600이다.
3. 외부구입원가는 ₩35 × 1,000단위 = ₩35,000이다.
4. 영업이익 증감은 ₩33,600 - ₩35,000 = -₩1,400이다. 따라서 외부구입을 수락하면 연간 영업이익이 ₩1,400 감소한다.

선지 판단

① O — 계산 결과 외부구입 시 영업이익이 ₩1,400 감소하므로 옳다.
② X — '₩1,400 증가'는 증감 방향이 반대이다. 올바르게는 '₩1,400 감소'이다.
③ X — '₩3,600 감소'는 감소액이 잘못되었다. 관련원가를 모두 반영한 올바른 감소액은 ₩1,400이다.
④ X — '₩3,600 증가'는 금액과 증감 방향이 모두 잘못되었다. 올바르게는 '₩1,400 감소'이다.
⑤ X — '₩4,800 감소'는 감소액이 잘못되었다. 회피가능 고정원가 ₩400과 추가 공헌이익 ₩200까지 반영하면 올바른 감소액은 ₩1,400이다.

오답 포인트

단위당 총원가 ₩38을 그대로 자가제조 관련원가로 사용하면 안 된다. 고정제조간접원가 중 회피되지 않는 부분은 외부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제외하고, 실제 절감액 ₩400만 포함한다. 또한 설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얻는 공헌이익 ₩200은 외부구입의 효익으로 더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조·구입 의사결정에서는 변동원가, 회피가능 고정원가, 기회원가만 관련원가로 분류한 뒤 두 대안의 차이를 계산한다. 배부된 고정원가 총액은 회피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반영한다.

암기 포인트

외부구입 판단의 핵심은 '변동원가 + 회피가능 고정원가 + 기회원가'와 구입원가의 비교이다.

NoteBase

문 35. (주)세무는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매월 동일한 표준원가를 적용한다. 20x1년 5월과 6월의 실제 제품 생산량은 각각 100단위와 120단위이었고, 다음과 같은 조업도차이가 발생했다. (주)세무의 고정제조간접원가 월간 예산은?

기간	조업도차이
5월	₩1,000(불리)
6월	₩600(불리)

① ₩3,000

② ₩3,200

③ ₩4,800

④ ₩5,400

⑤ ₩6,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의 월별 차이를 이용하여 단위당 표준고정제조간접원가배부율을 먼저 구한 뒤 월간 예산을 역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5월 실제 생산량은 100단위이고 조업도차이는 1,000원 불리이다.
6월 실제 생산량은 120단위이고 조업도차이는 600원 불리이다.
매월 동일한 표준원가를 적용하므로 단위당 표준고정제조간접원가배부율은 두 달에 동일하다.

사용할 공식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는 다음과 같다.
조업도차이(불리)=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배부된 고정제조간접원가
생산량을 배부기준으로 보면 배부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실제 생산량에 단위당 표준배부율을 곱한 금액이다.
불리한 차이는 예산액이 배부액보다 크다는 뜻이므로 위 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월간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을 B, 단위당 표준배부율을 r이라 하면 다음 두 식이 성립한다.

$B - 100r = 1{,}000$

$B - 120r = 600$

첫째 식에서 둘째 식을 빼면 $20r = 400$이므로 $r = 20$이다. 이를 5월 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B = 1{,}000 + 100 \times 20 = 3{,}000$

6월 식으로 검산해도 $600 + 120 \times 20 = 3{,}000$이므로 월간 예산은 3,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O — 계산된 월간 예산 3,000원과 일치한다.

② X — 3,200원은 두 달에 동일한 표준배부율을 적용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올바른 금액은 3,000원이다.

③ X — 4,800원은 두 월의 조업도차이 식을 동시에 만족하지 않는다. 올바른 금액은 3,000원이다.

④ X — 5,400원은 생산량 차이 20단위에 대응하는 조업도차이 감소액 400원을 반영하여 역산한 값이 아니다. 올바른 금액은 3,000원이다.

⑤ X — 6,000원은 5월과 6월 어느 식에 대입해도 동일한 단위당 표준배부율 20원이 나오지 않는다. 올바른 금액은 3,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두 달의 불리한 조업도차이 1,000원과 600원을 단순히 더하거나 평균해서는 안 된다. 생산량이 20단위 증가할 때 불리한 차이가 400원 감소했으므로, 먼저 단위당 표준배부율 20원을 구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월간 예산이 같고 생산량과 조업도차이가 두 기간 주어지면, 조업도차이의 변동액을 생산량 변동분으로 나누어 단위당 표준배부율을 구한 뒤 한 기간의 식에 대입하여 예산을 역산한다.

암기 포인트

불리한 조업도차이는 예산액이 배부액보다 큰 경우이므로 '예산액 - 배부액'으로 계산한다.

NoteBase

문 36. (주)세무는 최근에 신제품을 개발하여 처음으로 10단위를 생산했으며, 추가로 10단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직접노무시간은 처음 10단위 생산에 소요된 직접노무시간의 60%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세무의 신제품 생산에 누적평균시간 학습모형이 적용된다면 학습률은?

① 60%

② 65%

③ 80%

④ 85%

⑤ 9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생산량이 두 배가 될 때 단위당 누적평균 직접노무시간이 기존 평균의 몇 %가 되는지를 계산하여 학습률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처음 10단위의 총직접노무시간을 T라고 둔다.
추가 10단위의 직접노무시간은 $0.6T$이다.
따라서 20단위의 누적 총직접노무시간은 $T + 0.6T = 1.6T$이다.
구해야 할 값은 생산량이 10단위에서 20단위로 두 배가 될 때의 누적평균시간 비율이다.

사용할 공식

학습률=20단위 생산 시 단위당 누적평균시간10단위 생산 시 단위당 누적평균시간× 100\%
누적평균시간 학습모형에서 학습률은 생산량이 두 배가 될 때 단위당 누적평균시간이 직전 평균의 몇 %가 되는지를 나타내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처음 10단위의 단위당 누적평균시간은 $T/10$이다.
2. 20단위의 누적 총직접노무시간은 $1.6T$이므로 단위당 누적평균시간은 $1.6T/20 = 0.08T$이다.
3. 따라서 학습률은 다음과 같다.

$$\frac{1.6T/20}{T/10} \times 100\% = 0.8 \times 100\% = 80\%$$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60%는 추가 10단위의 총직접노무시간이 처음 10단위의 총직접노무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일 뿐이다. '학습률은 60%'라는 표현은 틀리고, 누적평균시간의 비율로 계산한 80%가 옳다.
② X — 누적평균시간 비율은 65%가 아니라 80%이다. '학습률은 65%'를 '학습률은 80%'로 고쳐야 한다.
③ O — 생산량이 10단위에서 20단위로 두 배가 될 때 단위당 누적평균시간이 $T/10$에서 $1.6T/20$로 감소하며, 그 비율은 80%이다.
④ X — 누적평균시간 비율은 85%가 아니라 80%이다. '학습률은 85%'를 '학습률은 80%'로 고쳐야 한다.
⑤ X — 누적평균시간 비율은 90%가 아니라 80%이다. '학습률은 90%'를 '학습률은 80%'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문제의 60%를 곧바로 학습률로 선택하는 것이 함정이다. 60%는 두 번째 10단위 묶음에 소요된 시간의 비율이고, 학습률은 생산량이 두 배가 된 시점의 단위당 누적평균시간 비율이므로 두 묶음의 시간을 합산한 뒤 전체 20단위로 나누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추가 생산분의 시간이 제시되면 먼저 각 생산 묶음의 시간을 합산해 누적 총시간을 구하고, 누적 생산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누적평균시간을 계산한 뒤 생산량이 두 배가 되기 전의 평균과 비교한다.

암기 포인트

추가분 시간비율과 학습률은 다르다. 학습률은 '생산량 두 배 시 단위당 누적평균시간의 비율'이다.

NoteBase

문 37. (주)세무는 분권화된 사업부 A와 B를 각각 이익중심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사업부A는 부품X를 매월 40,000단위 생산하여 단위당 ₩50에 전량 외부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사업부A의 부품X 생산에 관한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사업부B는 최근에 신제품을 개발했으며, 신제품 생산을 위해서 사업부A에 성능이 향상된 부품Xplus를 매월 20,000단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업부A가 부품Xplus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부품X 2단위를 포기해야 하며, 부품X의 변동제조원가에 단위당 ₩20의 재료원가가 추가로 투입된다. 부품X의 외부 수요량은 매월 40,000단위로 제한되어 있다. 사업부A가 현재의 영업이익을 감소시키지 않기 위해 사업부B에 요구해야 할 부품Xplus의 단위당 최소대체가격은?

구분	금액/단위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35
월간 최대생산능력	50,000단위

① ₩66.25

② ₩75.50

③ ₩77.50

④ ₩80.25

⑤ ₩85.5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유휴생산능력과 외부판매의 기회비용을 함께 반영하여 공급사업부의 영업이익을 감소시키지 않는 최소대체가격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부품X의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35이고 외부판매가격은 ₩50이므로 단위당 공헌이익은 ₩15이다.
월간 최대생산능력은 부품X 기준 50,000단위이고 현재 생산량은 40,000단위이므로 유휴생산능력은 10,000단위이다.
부품Xplus 20,000단위를 생산하려면 부품X 40,000단위분의 생산능력이 필요하다. 이 중 10,000단위분은 유휴생산능력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30,000단위분은 부품X의 외부판매를 포기해야 한다.
부품Xplus의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부품X의 변동제조원가 ₩35에 추가 재료원가 ₩20을 더한 ₩55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최소대체가격=단위당 추가 변동원가+단위당 기회비용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사업부A가 현재의 영업이익을 유지하려면 부품Xplus 생산에 직접 드는 변동원가뿐 아니라 외부판매 감소로 잃는 공헌이익까지 회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부품X의 단위당 공헌이익은 ₩50-₩35=₩15이다.
2. 포기하는 부품X 외부판매량은 40,000단위분-10,000단위분=30,000단위이다.
3. 총기회비용은 30,000단위×₩15=₩450,000이다.
4. 부품Xplus 단위당 기회비용은 ₩450,000÷20,000단위=₩22.50이다.
5. 최소대체가격은 ₩55+₩22.50=₩77.50이다.

선지 판단

① X — ₩66.25는 최소대체가격 ₩77.50보다 ₩11.25 낮아 관련 변동원가와 기회비용을 모두 회수하지 못한다. 올바른 최소대체가격은 ₩77.50이다.
② X — ₩75.50은 최소대체가격보다 ₩2.00 낮아 사업부A의 영업이익이 감소한다. 올바른 값은 ₩77.50이다.
③ O — ₩77.50은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55와 단위당 기회비용 ₩22.50의 합계와 일치한다.
④ X — ₩80.25는 사업부A의 영업이익 감소를 막을 수는 있지만 ₩77.50보다 ₩2.75 높으므로 요구해야 할 최소가격은 아니다. 올바른 최소대체가격은 ₩77.50이다.
⑤ X — ₩85.50도 최소 필요액보다 ₩8.00 높으므로 최소대체가격이 아니다. 올바른 최소대체가격은 ₩77.50이다.

오답 포인트

부품Xplus 1단위가 부품X 2단위분의 생산능력을 사용한다는 조건과, 유휴생산능력이 부품X 10,000단위분뿐이라는 조건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 부품X 40,000단위분 전체에 기회비용을 부과하거나 기회비용을 전혀 반영하면 안 된다. 또한 '부품X 2단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생산능력과 기회비용에 관한 조건이며, 부품X의 변동제조원가 ₩35를 두 배로 하라는 뜻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최소대체가격은 먼저 대체품의 추가 변동원가를 구하고, 필요한 생산능력에서 유휴생산능력을 뺀 뒤, 그 때문에 포기하는 외부판매 공헌이익을 대체품 단위당 기회비용으로 환산하여 더한다.

암기 포인트

최소대체가격 = 추가 변동원가 + 포기한 외부판매의 단위당 기회비용이다.

NoteBase

문 38. (주)세무는 상품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x2년 1분기의 매출액 예산은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상품재고는 ₩10,000이고, 매입채무는 ₩42,400이다. (주)세무는 20x2년에 매월 기말재고로 다음 달 예상 매출원가의 10%를 보유한다. 매월 상품매입은 현금매입 40%와 외상매입 60%로 구성되며, 외상매입대금은 그 다음 달에 모두 지급한다. 상품매입으로 인한 2월의 현금지출 예산은?

구분	1월	2월	3월
매출액	₩100,000	₩120,000	₩150,000
매출원가율	80%	75%	70%

① ₩74,000

② ₩84,000

③ ₩85,500

④ ₩91,500

⑤ ₩95,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매출원가와 목표 기말재고를 이용해 월별 상품매입액을 구한 뒤, 2월 현금매입액과 1월 외상매입대금 지급액을 합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1월 매출원가는 100,000원 × 80% = 80,000원이고, 2월 매출원가는 120,000원 × 75% = 90,000원이며, 3월 매출원가는 150,000원 × 70% = 105,000원이다.
매월 기말재고는 다음 달 예상 매출원가의 10%이므로 1월 말 재고는 9,000원, 2월 말 재고는 10,500원이다.
2월 현금지출은 2월 매입액의 현금매입분 40%와 1월 매입액의 외상매입분 60%로 구성된다.

사용할 공식

상품매입액=매출원가+기말재고-기초재고
2월 현금지출=2월 매입액×40\%+1월 매입액×60\%
매출원가에 목표 기말재고를 더하고 이미 보유한 기초재고를 빼면 당월에 필요한 매입액이 된다. 외상매입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므로 2월에는 1월 외상매입분을 지급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1월 매입액은 80,000원 + 9,000원 - 10,000원 = 79,000원이다.
2. 2월 매입액은 90,000원 + 10,500원 - 9,000원 = 91,500원이다.
3. 2월 현금매입 지출액은 91,500원 × 40% = 36,600원이다.
4. 2월에 지급하는 1월 외상매입대금은 79,000원 × 60% = 47,400원이다.
5. 따라서 2월 현금지출 예산은 36,600원 + 47,400원 = 84,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74,000은 2월 현금매입분 36,600원과 1월 외상매입대금 47,400원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2월 현금지출액은 ₩84,000이다.
② O — ₩84,000은 2월 현금매입분 ₩36,600과 1월 외상매입대금 ₩47,400을 합한 금액이다.
③ X — ₩85,500은 월별 재고 증감과 현금·외상 결제시기를 반영해 계산한 금액이 아니다. 올바른 계산은 ₩36,600 + ₩47,400 = ₩84,000이다.
④ X — ₩91,500은 2월의 총상품매입액이지 2월의 현금지출액이 아니다. 현금지출액은 2월 매입액의 40%와 1월 매입액의 60%를 합한 ₩84,000이다.
⑤ X — ₩95,000은 2월 현금매입분과 1월 외상매입분을 결제비율에 따라 구분한 결과가 아니다. 올바른 2월 현금지출액은 ₩84,000이다.

오답 포인트

2월 매입액 ₩91,500을 그대로 현금지출액으로 보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당월 매입액 중 40%만 당월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현금지출에는 전월 외상매입액의 60%가 포함된다. 또한 목표 기말재고는 당월이 아니라 다음 달 매출원가의 10%로 계산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월별 매출원가를 구하고, 다음 달 매출원가로 목표 기말재고를 계산한 뒤 월별 매입액을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지급시점에 맞추어 당월 현금매입분과 전월 외상매입분을 합산한다.

암기 포인트

매입액은 매출원가 + 기말재고 - 기초재고이고, 현금지출은 당월 현금매입 + 전월 외상매입대금이다.

NoteBase

문 39. (주)세무는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호 대체가능한 원재료 A와 B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한다. 원재료 투입량과 표준가격은 다음과 같다. 재료원가 차이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표준투입량은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원재료 투입량을 의미하며, 원가차이의 유리(혹은 불리) 여부도 함께 판단할 것)

원재료	실제투입량	표준투입량	kg당 표준가격
A	150kg	120kg	₩30
B	150kg	180kg	₩20

① 원재료 A와 B에서 발생한 수량차이(능률차이)는 총 ₩300 유리하다.

② 배합차이로 인해 재료원가가 예상보다 ₩600 더 발생했다.

③ 배합차이로 인해 원재료 A의 원가는 예상보다 ₩900 적게 발생했다.

④ 수율차이(순수수량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⑤ 원재료 A와 B의 실제투입량 합계가 300*kg*에서 400*kg*으로 증가하면 유리한 수율차이가 발생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표준배합비로 환산한 수정표준수량을 이용하여 재료수량차이를 배합차이와 수율차이로 분해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실제투입량은 A 150*kg*, B 150*kg*로 합계 300*kg*이다. 표준투입량은 A 120*kg*, B 180*kg*로 합계 300*kg*이며, 표준배합비는 A 40%, B 60%이다. 표준가격은 A가 *kg*당 ₩30, B가 *kg*당 ₩20이다. 실제 총투입량 300*kg*에 표준배합비를 적용한 수정표준수량은 A 120*kg*, B 180*kg*이다.

사용할 공식

재료수량차이는 다음과 같이 분해한다.

배합차이=(실제수량-수정표준수량)×표준가격

수율차이=(수정표준수량-표준수량)×표준가격

수정표준수량은 실제 총투입량에 표준배합비를 곱한 값이므로 배합만 달라진 효과와 총투입량이 달라진 효과를 분리할 수 있다. 계산 결과가 원가 증가이면 불리, 원가 감소이면 유리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A의 배합차이는 $(150 - 120) \times 30 = ₩900$ 불리이다.
2. B의 배합차이는 $(150 - 180) \times 20 = ₩600$ 유리이다.
3. 전체 배합차이는 ₩900 불리와 ₩600 유리를 상계한 ₩300 불리이다.
4. 실제 총투입량과 표준 총투입량이 모두 $300kg$이므로 수정표준수량과 표준수량이 일치한다. 따라서 수율차이는 ₩0이다.
5. 전체 수량차이는 배합차이 ₩300 불리와 수율차이 ₩0의 합인 ₩300 불리이다.

선지 판단

① X. 전체 수량차이는 ₩300 유리가 아니라 ₩300 불리이다. 틀린 표현 '총 ₩300 유리하다'는 '총 ₩300 불리하다'로 고쳐야 한다.
② X. 배합차이로 증가한 재료원가는 ₩600이 아니라 ₩300이다. 틀린 표현 '₩600 더 발생했다'는 '₩300 더 발생했다'로 고쳐야 한다. ₩600은 B에서 발생한 유리한 배합차이만 본 금액이다.
③ X. A는 표준배합에 따른 $120kg$보다 $30kg$ 더 투입되므로 원가가 ₩900 적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900 더 발생한다. 틀린 표현 '₩900 적게 발생했다'는 '₩900 더 발생했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실제 총투입량과 표준 총투입량이 모두 $300kg$이어서 수율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⑤ X.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총투입량이 $300kg$인 상태에서 실제 총투입량이 $400kg$으로 늘면 투입량을 $100kg$ 초과한 것이므로 불리한 수율차이가 발생한다. 표준가중평균가격은 $(120 \times 30 + 180 \times 20)/300 = ₩24$이므로 수율차이는 ₩2,400 불리이다. 틀린 표현 '유리한 수율차이'는 '불리한 수율차이'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A의 ₩900 불리와 B의 ₩600 유리를 각각 전체 차이로 착각하거나, 두 차이의 유리·불리 방향을 무시하면 ①~③을 잘못 판단한다. 또한 실제 총투입량이 표준 총투입량과 같으면 배합이 달라도 수율차이는 0이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실제 총투입량에 표준배합비를 곱해 수정표준수량을 구한다. 실제수량과 수정표준수량의 차이는 배합차이, 수정표준수량과 표준수량의 차이는 수율차이로 판단하고, 원가 증가를 불리, 원가 감소를 유리로 표시한다.

암기 포인트

실제수량 ↔ 수정표준수량은 배합차이, 수정표준수량 ↔ 표준수량은 수율차이이다. 실제 총량과 표준 총량이 같으면 수율차이는 0이다.

NoteBase

문 40. (주)세무는 제품 A와 B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제품별 판매 및 원가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품A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4,000이다.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한 제품B의 판매량은? (단, 매출배합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구분	제품A	제품B	합계
판매량	?	?	100단위
매출액	₩200,000	₩300,000	₩500,000
변동비	?	?	₩375,000
고정비			₩150,000

① 55단위

② 60단위

③ 80단위

④ 85단위

⑤ 90단위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매출배합이 일정한 다품종 손익분기점에서 가중평균 공헌이익률을 이용하여 제품별 손익분기 판매량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현재 총판매량은 100단위이고, 제품 A의 매출액은 200,000원, 제품 B의 매출액은 300,000원이다. 제품 A의 단위당 판매가격이 4,000원이므로 A의 판매량은 50단위이다. 따라서 B의 판매량도 50단위이고 수량 기준 매출배합은 A:B = 1:1이다. 총매출액은 500,000원, 총변동비는 375,000원, 고정비는 150,000원이다.

사용할 공식

가중평균 공헌이익률은 (총공헌이익)/(총매출액)이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고정비)/(가중평균 공헌이익률)이다. 매출배합이 일정하므로 손익분기점의 총매출액도 현재의 제품별 매출액 비율 A:B = 2:3으로 배분할 수 있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총공헌이익은 $500{,}000 - 375{,}000 = 125{,}000$원이므로 가중평균 공헌이익률은 $\frac{125{,}000}{500{,}000} = 25\%$이다.
2. 손익분기점 총매출액은 $\frac{150{,}000}{0.25} = 600{,}000$원이다.
3. 제품 B의 매출액 비중은 $\frac{300{,}000}{500{,}000} = \frac{3}{5}$이므로 손익분기점에서 B의 매출액은 $600{,}000 \times \frac{3}{5} = 360{,}000$원이다.
4. 현재 A 판매량은 $\frac{200{,}000}{4{,}000} = 50$단위이고 총판매량이 100단위이므로 B 판매량도 50단위이다. 따라서 B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frac{300{,}000}{50} = 6{,}000$원이다.
5. 손익분기점에서 B의 판매량은 $\frac{360{,}000}{6{,}000} = 60$단위이다.

선지 판단

① X — 55단위는 계산 결과 60단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값 55단위는 올바르게는 60단위이다.
② O — 손익분기점에서 제품 B의 매출액 360,000원을 단위당 판매가격 6,000원으로 나누면 60단위이다.
③ X — 80단위는 계산 결과 60단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값 80단위는 올바르게는 60단위이다.
④ X — 85단위는 계산 결과 60단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값 85단위는 올바르게는 60단위이다.
⑤ X — 90단위는 계산 결과 60단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값 90단위는 올바르게는 60단위이다.

오답 포인트

총판매량 100단위를 제품별로 바로 배분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A의 단위당 판매가격과 매출액으로 A 판매량 50단위를 먼저 구하면 B 판매량도 50단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손익분기점 총매출액 600,000원을 전부 B의 매출액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일정한 매출배합에 따라 B의 매출액 비중 $\frac{3}{5}$만 배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다품종 손익분기점 문제에서는 먼저 총공헌이익률로 손익분기점 총매출액을 구한 뒤, 일정한 매출배합에 따라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배분하고 그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으로 나누어 판매량을 구한다.

암기 포인트

다품종 손익분기점은 '가중평균 공헌이익률 → 총손익분기 매출액 → 제품별 매출배합 → 제품별 판매량'의 순서로 계산한다.

NoteBase